dailylocal
전국 국내산 특산품 쇼핑몰
www.dailylocal.닷컴

문화매일

제 1376호 2023 / 4/13/ Thur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尹 대통령 "세계 모빌리티 혁신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원팀으로 뛸 것"

윤석열 대통령, 기아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11, 화) 오후,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기아 화성공장('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기공식에 앞서 기아 생산차량 전시관에 들러 향후 기아 화성공장에서 생산될 목적기반 모빌리티(PBV)의 컨셉 모델 등을 살펴봤습니다. 대통령은 전시관에서 반려견용으로 조수석을 비워둔 PBV 컨셉 모델을 보고 "우리집은 반려견이 여섯 마리라 조수석만으로는 부족하겠다"고 말해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기아 화성 3공장의 생산라인을 시찰하면서 주요 공정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현장에 마련된 직원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안전팀 직원에게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했고, 직원은 "매일 순찰을 돌고 아침마다 직원들 상대로 안전교육도 한다. 자동차 조립이 일상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 늘 주의하려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 직원이 대통령에게 "격무에 시달리실 텐데 건강유지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하자, 대통령은 "현장 다니며 국민 여러분들을 만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저절로 건강이 관리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여러분도 늘 직장에 출근해서 일하다 보니까 일상이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나와보면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다. 특히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을 만나면 스트레스가 저절로 풀린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대통령에게 "지난번 시구를 보니 공을 참 잘 던지시더라.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예전에는 걷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운동이 부족하다. 그래서 야구공 던지는 것은 계속 해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있던 한 수석 엔지니어가 대통령에게 "전기차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데 국내 충전 인프라는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정부에서 신경 써 달라고 건의하자, 대통령은 "잘 알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대통령은 수석 엔지니어에게 "말투를 들으니 강원도 분 같은데, 혹시 맞나?"하고 질문을 했고, 수석 엔지니어는 "맞다, 영월이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오늘 강원도에 산불이 크게 나서 조금 전까지 조치를 취하고 왔는데 그래서 강원도 사투리가 더 귀에 잘 들어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기공식장에서 기공식이 시작하기 직전, 대통령은 기아차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로부터 전동식 워터펌프, 원격 정비시스템, 감속기 등의 부품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진 기공식에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능력을 지금의 5배로 높여 우리나라를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투자는 현대차 그룹이 29년 만에 국내에 새로 짓는 공장이자 2030년까지 계획한 국내 전기차 분야 '24조원 투자'의 첫 걸음이니 만큼, 현대차 그룹이 세계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원팀으로 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광수/기자

경북도↔한국공항공사↔경북대 '항공 모빌리티'구축 MOU 체결

도내 공항 활성화와 신공항 건설.운영 상호 협력 위해 맞손

경북도가 추진 중인 도내 공항 활성화와 UAM을 활용한 항공 모빌리티 구축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12일 도청에서 한국공항공사, 경북대학교와 함께 도내 공항 활성화와 신공항 건설·운영 협력 강화, 경북형 도심항공교통(G-UAM) 기반조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도는 신공항 건설·운영과 항공노선 확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경북형 도심항공교통(G-UAM)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를 지원하고, 한국공항공사는 도내 신공항 건설 운영에 경북도와 협력을 강화하며 UAM 버티포트 건설과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또한, 경북대학교는 UAM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 지원에 힘을 쏟는다.

먼저, 울릉도를 대한민국 도서관광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자 2025년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 울릉도를 하나의 테마파크처럼 입도에서 출도의 전 과정을 통합 연계하는 MaaS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서지역 특성을 고려한 내국인 면세점 도입과 취항 소형항공사 지원을 통해 도서 및 내륙공항 동시 활성화를 추진하고, 도내 공항에 지역 인재 채용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북의 우수한 역사·문화 자원과 백두대간, 낙동강, 동해안 등 풍부한 자연환경에 UAM을 접목한 경북형 운영 모델도 개발한다.

이를 위해 도내 주요관광지를 잇는 관광형 UAM을 우선적으로 상용화할 계획이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공사가 보유한 43년 항공 노하우·기술과 경북도의 행·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2025년 새롭게 개항할 울릉공항 및 도내 지역 공항 활성화와 경북형 UAM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신 경북대학교 부총장은 "신공항 건설과 UAM 운영에는 다양한 분야의 융합이 필요한데, 거점 국립대가 가진 기술, 인력,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건설·운영 및 버티포트 등 UAM 인프라 구축에 경쟁력을 갖고 있어 도내 공항과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항공 모빌리티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내 주요 관광지에 관광형 UAM 인프라 조성뿐만 아니라, 응급·재난과 교통오지 주민이동을 위한 공공형 서비스 네크워크 등 경북에 특화된 UAM 기반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에는 경북도가 강점을 갖고 있는 배터리, 전자, 통신 산업과 지역대학을 연계해 UAM 기체 및 부품개발과 버티포트 건설·유지까지 이어지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한국공항공사 KOREA AIRPORTS CORPORATION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스위스-한국 의원친선협회 접견...경제.산업교류 활성화 위한 협력 논의

염종현 의장, '스위스-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접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스위스-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지역 간 경제·산업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스위스 측 대표단이 '한국-스위스 수교 60주년'을 맞아 도의회와의 공식 면담을 주한 스위스 대사관을 통해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염 의장이 의원 중심으로 구성된 국외 대표단을 만난 것은 '몽골 다르항올(Darkhan-Uul) 도의회 대표단 접견(4월5일)' 이후 두 번째로, 코로나 장기화로 경색됐던 '의회 외교'가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1일 낮 12시 의회 지하 1층에서 진행된 접견에는 스위스-한국 의원친선협회 회장인 크리스티안 바서팔렌(WASSERFALLEN Christian) 국회의원(하원)과 장 뤽 아도르(ADDOR Jean-Luc)·이브 니데거(NIDEGGER Yves Robert)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기업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원 21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경제적 교류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고은정 부위원장(더민주, 고양10)과 김태희(더민주, 안산2)·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민주, 부천8) 및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등이 배석했다.

대표단은 제약 바이오, IT테크, 친환경 에너지 등의 신산업을 다루는 도내 기업을 발굴해 해당 기술과 제품을 스위스 글로벌 기업을 통해 유럽 등지에 중계수출을 하고자 하며, 소통 창구로서 역할 가능한 도의원들을 만나고자 의회를 찾았다는 내용의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바서팔렌 회장은 "개인적으로 한국 방문 6번째로, 대표단원 상당수가 한국을 여러 번 찾을 만큼 대한민국과 경기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며 "한국의 바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며 매번 '성장의 기운'을 느끼곤 한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은 물론 대한민국 중심지인 경기도와 더욱 친밀히 교류하고, 이번 방문에서 혁신의 방법을 배워가고자 한다"라며 "앞으로 양국과 지역 간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 많은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대표단은 도의회의 양당 의석수가 동수라는 점에 관심을 보이며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0.22% 수준인 경기도와 스위스의 교역규모를 확대하길 바란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도의원들은 경기도의 주력 산업으로 반도체,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등을 소개하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에 관심 가질 것을 당부했다.

염 의장은 "무역 활로를 찾고, 다방면에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명실상부한 미래성장산업 중심지인 경기도를 방문한 대표단을 환영한다"라며 "대표단이 방한 기간 중 값진 성과를 거두고, 도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염 의장은 지난 5일 몽골 다르항올(Darkhan-Uul) 도의회와 우호협력 10주년을 기념해 현지 대표단을 직접 접견하고, 교류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조혜영/기자

봉화군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봉화군의회는 12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4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군의원인 이승훈 의원과 재정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3명, 모두 4명으로 위촉됐다.

결산검사는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성과보고서 등 봉화군 재정 전반을 자세히 검토해 예산 집행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김상희 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 집행과 재정 운영의 적법성, 효율성을 세심하게 살피는 중요한 절차이다."며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됐는지 세밀하게 살피고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되도록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이승훈 의원은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가 없었는지 체계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결산검사위원들은 활동을 마무리한 뒤 오는 5월 검사의견서를 집행부에 제출하고 집행부에서는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서는 오는 6월중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정금자/기자

이용호 의원, 선관위에 투표소 안전 책임·권한 부여하는 '투표소 안전관리법'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으로 선거인 안전에 관한 선관위 책임성 확보

지난 3월, 순창군 농협 조합장선거 투표소 사고로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안전한 선거 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2일, 선거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투표소와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관해 장소 제한, 필수 설비, 교통약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인의 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선거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순창군 농협 조합장 선거의 투표소에서 화물트럭이 선거인 20명을 들이받아 사망 4명, 중상 4명, 경상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선거를 위탁받아 실시했지만, 현행법상 투표소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고에 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현행법은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 보장에만 무게를 두고 있어 투표소 내·외부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법안으로 투표소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해 선거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 선거 사무에 관한 선관위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영주시의회,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영주시 건립 촉구 건의안' 채택

영주시의회는 4월 12일 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영주시 건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경상북도청, 경상북도의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

영주시의회는 건의안에서 "경상북도에는 현재 중규모 이상의 안전체험관이 없는 상황이며,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소백산 등 백두대간 산줄기에 둘러싸여 대형산불, 산사태, 폭우에 따른 자연 재난에 상시로 노출되어 있고 특히 영주시는 SK스페셜티, 노벨리스코리아 등 대규모 공장을 시가지 인근에 두고 있어 그간 시민들은 재난 대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불안과 소외감 속에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주시는 수도권 및 강원권 등 다른 지역과 연결된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경북 내륙권을 포함한 경상북도 전체는 물론 안전체험관이 없는 타 도민들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하고 낙후된 경북 북부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을 영주시에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연 의장은 "10만 시민의 염원과 국가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상북도 안전체험관의 영주시 건립을 위해 시의회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박류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6 | 등록일 :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광고국:1899.96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사 회 부: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홍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길성 중구청장, 주요 사업 현장 밀착 점

김길성 중구청장이 10일 오후 주민의 안전.편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추진 현장 네 곳을 방문하고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챙겼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약수시장 주변 지중화 사업 현장이다. 거미줄처럼 얽힌 공중선을 땅속으로 옮기는 사업이 올해 연말 마무리되면 약수시장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거닐 수 있을 전망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현장을 둘러본 후"공사 후 땅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신경 써서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최초 모노레일 설치 현장도 방문했다. 대현산 배수지공원에는 운동시설과 녹지공간이 있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지만, 가파른 계단 110m를 걸어서 올라가야 했다. 구는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5인승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오는 10월이면 모노레일을 타고 5분 만에 편리하게 공원에 도착할 수 있다.

김 구청장은 공사장 주변 분전함을 살펴보고 안전과 미관을 고려하여 외관을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모노레일 탑승 전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제안했다.

서울중앙시장 하부에서는 신당 지하상가와 신당역을 잇는 지하 연결통로를 신설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당역에서 나온 후 신당지하상가를 통해 전통시장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구청장은 현장에서 공사 진행 현황을 보고 받은 후 환기 시설은 어떻게 설치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통로가 연결되는 지하상가까지 이동하며"공사가 완료됐을 때 지하상가의 상권을 어떻게 살릴지 아이디어를 모으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현장은 필동에 있는 빗물 저류조다. 빗물이 어떻게 이동하고 저장되는지 보기 위해 물길을 따라 걷고, 수문개방 시스템이 작동하는 과정을 지켜봤다. 이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폭우가 내렸을 때 어떤 방식으로 수위를 확인하고 통제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과거에는 남산에서 내려온 빗물이 청계천까지 그대로 흘러가 을지로동 저지대 일부가 침수되는 일이 있었다. 구는 2010년 필동 일대에 빗물 저류조를 설치해 이를 예방하고 있다. 필동 저류조에는 약 4,300여톤의 물을 가둘 수 있다. 한옥마을, 동국대 입구, 예장동에 설치된 빗물 저류조에서도 집중호우시 급속히 유입되는 빗물을 저장하고 있다.

김길성 구청장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평소 대비를 철저히 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하는 행정을 펼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강성원/기자

금천구, 주거약자 환경 개선 집수리 보조금 지원

금천구는 서울시 예산 약 4억 원을 지원받아 주거 취약가구,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 지역은 금천구 전역이며, 공사 지원범위는 성능개선(단열, 방수 등)뿐만 아니라 안전시설(침수 방지 시설, 화재 방재시설)과 편의시설(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까지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전 컨설팅을 시행한다. 집수리전문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물 상태를 점검해 효과적인 공사계획안을 신청인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컨설팅 내용을 토대로 견적서 작성, 시공업체 선정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신청대상자는 10년 이상 된 저층 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70% 이하 주거 취약가구 중 관할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은 경우다. 총 20가구 내외를 선정하며,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또한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의 반지하에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도 20가구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되면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6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여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해 임차인의 주거환경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70% 이하인 주거취약가구'는 4월 19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반지하 주택'은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구청 주거정비과로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앞으로도 주거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주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박황신/기자

불암산 힐링타운을 물들인 10만 주의 철쭉! 노원구, '2023 불암산 철쭉제'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노원구 대표 명소 불암산 힐링타운에서 펼쳐지는 '2023 불암산 철쭉제'

서울 노원구가 구 대표 명소인 불암산 힐링타운에서 10만 주 철쭉의 개화 시기에 맞춰 16일간 '2023 불암산 철쭉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불암산 힐링타운'에는 10만 주의 철쭉이 피는 '철쭉동산'을 중심으로, 365일 살아있는 나비를 관찰할 수 있는 '나비정원', 온실카페와 반려식물병원이 있는 '노원정원지원센터', 일상에서 벗어나 심신 안정을 도모하는 '산림치유센터', 보행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전망대'까지, 다양한 시설이 모여있는 구 대표 힐링 공간이다.

2021년에 실시한 구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사업 1위로 '불암산 힐링타운 조성'이 뽑힐 만큼 구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철쭉 개화 시기엔 약 25만 명이 방문하는 등 불암산 힐링타운이 노원구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구는 오는 15일(토)부터 30일(일)까지 16일간 개화 시기에 맞춰 철쭉과 함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2023 불암산 철쭉제'를 개최한다.

먼저, 불암산 힐링타운 내 주요 시설들을 활용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불암산 나비정원 '나비 샌드아트 만들기' ▲노원정원지원센터 '압화 책갈피 만들기' ▲산림치유센터 '건강체크', '약초족욕과 편백마사지' ▲유아숲체험원 '철쭉 열쇠고리 만들기' 등 시설별 특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노원정원지원센터 내 '카페 포레스트'에서는 철쭉 시즌 특제음료와 디저트를 판매할 예정이며, 센터 옆 도로에서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곤충 및 식물 표본 전시회를 진행한다.

프로그램별 운영시간, 장소, 체험비 등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험비는 무료~5,000원으로, 당일 현장 접수 후 참여 가능하다.

남녀노소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도 준비돼있다. 공연은 축제 기간 중 주말마다 총 4일(15일, 16일, 22일, 23일), 1일 3차례(14시, 15시, 16시) 불암산 힐링쉼터(하단 데크) 일원에서 펼쳐진다.

▲비눗방울 공연 '펀앤버블' ▲서커스 공연 '싸운드 서커스' ▲공중 퍼포먼스 '외봉인생' ▲브라스밴드 공연 '싱싱싱 콘서트' ▲국악&비보이 공연 '광개토 사물놀이' 등 화려한 퍼포먼스로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세계 유일 시각장애인 밴드 '한빛예술단'이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제곡과 가수 윤종신의 오르막길 등 유명곡들을 연주해 색다른 감동을 선사하며 첫 주말 공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불암산 나비정원 앞에 운영 부스를 설치해 리플릿 등을 배부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주말에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철쭉동산의 데크길은 일방통행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힐링쉼터 뒤편에는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 2대도 운영한다.

특별 주차 대책도 마련했다. 불암산 힐링타운 상설주차장(52면) 외에 임시주차장을 운영한다.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 총 6일간, 원광초등학교와 중계중학교의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한다.

또한, 불암산 힐링타운 주변 일부 도로는 주차단속 유예를 통해 임시로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적용 일시는 축제 기간 16일간 9시~18시이며, 유예구간은 한글비석로 14길, 삿갓봉 근린공원부터 중앙하이츠아파트까지로 해당 장소에 현수막을 걸어 표시할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10만주의 철쭉꽃과 어울리는,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으니 불암산 철쭉제에서 가족, 연인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며 "많은 분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안전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리며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영등포구, 더욱 커진 반창고로 구민 안전 책임진다

영등포구가 분야별 안전보험을 시행하여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도시 영등포'를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진다고 밝혔다.

구는 영등포구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 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의료비용을 보장하여 구민 생활 안정과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

2020년부터 운영된 '생활안전보험'은 3년 이내의 재난과 각종 사고를 보장한다. 지난해 구는 총 77건 사고에 대해 1,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올해 생활안전보험은 개 물림 사고, 타박상 등 상해를 입은 구민에게 개인 실손 보험과 별개로 1인당 70만 원 한도의 의료비와 1천만 원 한도의 장례비를 보장한다. 특히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의료비용까지 보장하여 구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 등은 제외한다.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구민은 구 홈페이지의 민원서식 게시판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아울러 구민은 생활안전보험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교통사고 등 7개 항목을 보장하는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구는 지난 4월부터 '자전거 보험'을 시행하여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1월 기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는 372만 명으로 3명 중 1명이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사고 역시 늘고 있다. 이에 구는 구민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2010년에 운영했던 자전거보험을 다시 재개했다.

사고 지역에 상관 없이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한 사고 피해를 보장하는 자전거보험은 ▲사망 시 1,000만 원 ▲휴유 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 ▲진단위로금 20~60만 원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시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을 보장한다.

덧붙여 구는 장애인 이동 수단인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을 지원하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 보험'과 '풍수해보험' 운영도 이어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탄탄하게 지킨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각 분야별 안전보험이 일생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든든한 언덕과 반창고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구석구석 촘촘하게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은평구, 2023. i.M 지니 드라이버 채용박람회 개최

은평구가 오는 21일 '2023 i.M 지니 드라이버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채용박람회는 서울중장년내일센터와 함께 주관하며, 채용설명회와 실제 현장 면접으로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만 40세 이상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구직자로, 택시 운전 경력이 없는 무경력자도 지원 가능하다. 면접 후 선발 과정을 거쳐 총 200명이 채용되며, i.M 택시의 정규직 드라이버로 근무할 예정이다. 근무 예정지는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북3구 소재 법인 택시회사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채용박람회로 인력난을 겪는 기업에는 인재 채용의 장을 열고, 중장년 구직자에게는 구직난 해소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어르신 댁에 '안전바' 놔드립니다…송파구, 홀몸어르신 주거안전 높인다

송파구가 올해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사고 방지 안전바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령 어르신들은 근력 약화 및 골다공증 등으로 낙상에 매우 취약하다. 또,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퇴원손상통계(2020)에 따르면 낙상사고의 43.8%는 주거지에서 발생했을 만큼 가정 내 낙상사고는 노후 삶의 질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관내 어르신들이 가정 내에서 노후생활을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독거어르신 낙상사고 방지 안전바 설치 사업'을 신설하고, 올해 연말까지 안전바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거동이 불편하고 기력이 저하된 어르신 40여 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댁에 '안전바'를 설치하여 보행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낙상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어르신들은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갑작스러운 현기증과 신체 균형의 저하로 위험할 수 있어 안전바 설치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송파구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상 복지용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독거 어르신이다. 오는 5월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자격 확인 후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독거어르신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낙상사고를 예방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복지사업을 발굴·확대하여 구민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2020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적 돌봄 사업으로 매년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50여 명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해 오고 있다.

황규석/기자

용인특례시, 반도체 산업 이끌 글로벌 기업 한자리에…경쟁력 확보 위한 '상생' 강조

'2023 용인 반도체 컨퍼런스'성황 이뤄…이동·남사 국가첨단산단 조성 기대감 높아

용인특례시는 11일 기흥구 구갈동 ICT밸리 컨벤션 플로리아 홀에서 '2023 용인 반도체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주), 램리서치 등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갈 글로벌 기업과 도쿄일렉트론코리아(주), ㈜테스, 서플러스글로벌(주) 등의 소부장 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첨단산단과 함께 만드는 미래…용인 메가 클러스터'를 주제로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비전을 공유했다.

이들 기업은 세계 각국의 반도체 관련 투자가 전쟁을 방불케 하는 현상에 주목하며 이를 국가적인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칩 메이커'라고 불리는 대기업과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상생을 특히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렇게 많은 분들로 행사장이 가득찬 것을 보니 용인특례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얼마나 높은지 알 것 같다"며 "이 컨퍼런스를 통해 국가첨단산단을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많은 지혜를 얻어 용인시, 나아가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처인구 남사·이동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추진 현황과 시가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 계획과 함께 L자형 반도체 벨트의 핵심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설명했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남사~이동~원삼~백암을 경유해 용인 남부지역 동서축을 잇는 노선이다. 경부고속도로, 국도 45호선,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를 연결하며 'L자형 반도체 벨트' 내 산업단지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국가첨단산업단지 반도체 FAB 1단계 운영 전까지 반도체 고속도로 조성을 완료해 향후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처인구 원삼면에 SK하이닉스(주)와 50여개의 협력기업이 입주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상황과 GTX 용인역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조성 계획도 설명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 유치 계획과 미래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변화상을 제시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세계적인 반도체 시장의 추세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 확대로 인해 반도체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을 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을 설명했다.

변화가 빠르고 기술 장벽이 높아 최고 수준의 생산요소(자본, 인력, 기술)와 기반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은 제조 부문 역량이 뛰어나지만 이를 뒷받침 하는 기술 경쟁력이 미흡해 팹리스(설계),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용인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 앞으로 산업 생태계를 이끄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 발표자로 나선 박진수 삼성전자 상무와 이병찬 SK하이닉스(주) 부사장은 반도체 산업이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닌 생태계와 생태계 간의 경쟁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상생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며 협력사와의 상생 노력과 지원책 등을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 첫 발표자로 나선 램리서치 박태순 박사는 용인 램리서치 코리아테크놀로지센터 개관 배경과 차세대 반도체 솔루션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업 혁신 등을 소개했다.

박영우 도쿄일렉트론코리아(주) 부사장은 반도체 장비 시장에 대한 전망을 설명하고 자사의 주요 장비들과 반도체 개발 방향에 따른 기술 로드맵을 설명했다.

박윤수 ㈜테스 부사장은 용인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방안으로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핵심 부품 국산화를 통해 대기업인 칩 메이커와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웅 서플러스글로벌(주) 대표이사는 반도체 산업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하며 반도체 중고장비 시장의 현황과 비전, 세계 각국의 반도체 기업 지원책 등을 설명하며 규모의 경제와 집적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는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첫 시작을 알리고,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를 이끌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상생과 협력을 다짐하는 계기가 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용인시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국내 200여곳 소부장 기업 관계자, 관련 학과 대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조혜영/기자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시 공공기관 거버넌스 강화"주문

박승원 광명시장이 광명시 공공기관 간 협업 강화를 통한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박 시장은 지난 11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광명도시공사, 광명시자원봉사센터, 광명문화재단, 광명시청소년재단 소속 직원 17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시정설명회'에서 "기관 간 상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도시공사 행사에 문화재단 추천 공연 접목, 자원봉사센터 수요 발굴 시 타 기관과의 협업 추진, 청소년재단 진로교육 시 도시공사 체험 등을 예로 들며,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거버넌스 역할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간 협약을 맺고 각 기관의 고유 업무를 융합해 정책 시너지를 높이라는 취지의 주문이다.

박 시장은 앞서 4개 기관의 업무 현황과 비전을 보고받고 광명시의 성장을 위해 각 기관별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 조언했다.

도시공사에는 내부의 혁신 노력을 통해 공사의 내실화를 앞당겨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문화재단에는 광명시만의 문화예술 DNA를 찾아 광명시의 문화적 자산을 키워나갈 것을 주문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도시 내 공동체 활동 확산 노력에 앞장서고, 자원봉사 활동가들이 시민들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자질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청소년재단에는 학교밖 청소년 활동 지원 강화와 청소년 대상 ESG 교육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시정설명회에서 민선8기 시정철학과 2023년 광명시 시정 운영 방향도 공유했다.

박 시장은 "저출생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는 점점 고립화하고 기술혁명으로 사회적 격차는 심화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지방정부가 해야할 역할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광명시는 '혁신, 성장, 상생'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시정 운영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 2023년 광명시 5대 정책 방향인 ▲민생경제 강화 ▲탄소중립 실천 ▲정원도시 실현 ▲신.구도시 간 균형발전 ▲지역공동체 회복을 설명하면서 "광명시와 공공기관은 시민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함께하는 동지로서 더 강한 신뢰를 갖고 함께 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2부 행사로 진행된 'ESG 경영교육'에는 박주원 지속가능경영재단 ESG경영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올바른 ESG 경영전략'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ESG 주요 이슈 ▲기업, 공공기관 등 타 기관 ESG 경영 우수사례 ▲타 기관 ESG 경영 혁신사례로 바라본 광명형 ESG 적용 방안 등이다.

광명시는 민선8기 주요 시정 80개 과제를 ESG와 연계해 ▲탄소중립 ▲순환경제 ▲사회적경제 ▲평생학습 ▲포용돌봄 ▲자치분권 등 6대 과제로 재편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ESG 행정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용민/기자

성남시 38개 동에 간호직 배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성남시는 3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간호직 공무원을 1명씩 배치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찾아가는 보건복지'는 기존의 사회복지와 행정서비스 영역에 간호직 공무원의 역할을 더한 개념이다.

해당 서비스는 간호직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출산·아동양육 가구, 65세 또는 75세 이상 진입 어르신 가구, 중장년 1인 가구 등 대상 가구를 방문·상담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각의 역할에 따라 간호직 공무원은 혈압, 혈당 측정 등으로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정보를 제공한다. 상담 과정에서 건강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병원을 연계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대상자의 욕구에 맞춰 정서, 일상생활, 주거, 돌봄 등 사회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건강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사회복지 급여, 긴급 지원 등을 연계하고, 보건소에 의뢰해 사후관리를 받도록 지원한다.

동 행정복지센터로 찾아오는 이들에 대한 보건복지 상담 서비스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의료와 복지 서비스가 시너지 효과를 내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희망 복지 도시 성남을 이뤄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율/기자

파주시, 전 직원 업무 개선 아이디어 경진대회…행정업무에 활용

파주시는 시 업무 전 분야에 대한 업무개선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아이디어를 신청받는다.

업무 개선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파주시 직원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로 3회째다. 경진대회는 제안자의 목소리를 글에만 그치지 않고 발표로 직접 표현할 수 있도록 1차 심사를 통과한 제안은 오디션 형태의 본심사가 진행된다.

우수 제안은 1차 실무위원 평가와 시민투표, 직원투표를 거친 후 2차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제안심사위원회 본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우수 제안자에게는 표창과 시상금(금상 300만원~장려상 30만원)을 수여한다.

지난해에는 ▲등록만 해도 수익이 쏙쏙 '파주시 청사 가상발전소 구축 추진'(금상), ▲스마트링크 앱을 활용한 공용차량 배차시스템 구축(동상) ▲카드지출 업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동상) ▲불법주정차 민원처리 전담반 편성(장려) 등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공모전을 통해 실제 업무하는 직원의 아이디어를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공모전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평택시 로컬푸드 납품농가를 위해 동참해주세요!

평택시 공공청사(시청 본청, 송출청사) 로컬푸드 임시판매대 설치

평택시는 로컬푸드 납품농가 판매 촉진의 하나로 11일부터 공공청사 2곳(시청 본관, 송탄출장소 본관)에서 로컬푸드 임시판매대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판매 첫날인 11일, 정장선 시장과 각 국·소장들은 시청 본관 판매대를 찾아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구매하고 관내 로컬푸드 농산물 판매촉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공공청사 내 판매대 설치는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컬푸드 판매대는 (재)평택시로컬푸드재단에서 납품농가의 소득 보전 및 우수농산물 홍보의 하나로 판매수수료 없이 운영하며 6월 말까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소비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카드, 계좌이체로 구매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평택시청 △본청은 11일 ~ 6월 말 △송탄출장소는 20일 ~ 6월 말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평택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2023년 광주시 상반기 채용박람회 개최

광주시는 구인·구직 면접을 통해 구직자에게는 원하는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필요한 우수인재 채용기회 제공으로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3년 광주시 상반기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오는 27일 2~4시까지 광주시민체육관에서 25개 구인기업체 및 구직자 총 4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1:1 면접채용관 외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업홍보관을 운영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한다.

더불어 이력서사진촬영, 적성검사, 취업타로 등의 부대행사 및 자활센터, 여성새일센터, 무료노무상담, 건강증진센터 등의 유관기관도 참여하여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취업정보 제공을 통해 채용박람회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작년 채용박람회에서는 모집인원 287명(40개 구인기업체)에 총 402명이 면접에 참여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관내 구직자의 취업역량 강화 및 맞춤형 취업알선을 위해 위탁운영 중인 광주시 일자리센터에서는 3월말 기준 741명의 취업 알선 성공의 성과를 거두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채용박람회 개최를 통해 관내 구인업체 및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알선을 통하여 고용창출 및 실업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구직자들을 위한 연령별 취업프로그램, 상설면접, 동행면접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상시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강호/기자

수원시, 2023년 민 • 관 사례관리사 역량강화 교육

수원시는 6월 22일까지 수원시홍재복지타운에서 '2023년 민·관 사례관리사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11일 시작된 '민·관 사례관리 교육'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례관리 기록의 실제, 정신질환, 성년후견, 임대차보호법 등 실무적인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교양과목으로 구성된다.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가 주관한다.

실무 담당자, 슈퍼바이저(중간관리자), 관리자(동장, 복지기관장)과정으로 나눠 단계별로 교육한다.

총 13과정을 25회(1회 3시간) 제공하며, 실무 과정(8과정)은 ▲고립과 은둔형 외톨이 ▲경계성 지능과 정신장애 ▲발달장애 바로알기 ▲복지당사자관점 이해와 상담 등 ▲사례관리 실무 이해 ▲공공사례관리 기록의 실제 ▲변화를 위한 강점 관점 상담 등으로 구성했다.

슈퍼바이저 과정(4과정)은 ▲감성리더쉽 ▲이야기치료 ▲성년후견제도 등 통합사례관리 이해 ▲함께 소통하며 행복 만들기로, 관리자 과정(1과정)은 소통하는 리더의 힘(소통리더십)으로 편성했다.

상반기 집합교육을 하고, 5~10월 사이 5명 이내의 민·관 사례관리사를 선진지에 견학을 보낼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정신질환, 은둔형외톨이 등 고난도 사례에 적절히 개입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는 민·관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복합적 욕구를 지닌 고난도 사례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사례관리 전문기관이다.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업·기관·단체 등이 전달한 후원금과 물품 등을 소외이웃에게 제공하고 있다.

조혜영/기자

염태영 경제부지사, 스위스-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과 경제협력 논의

○ 염태영 경제부지사, 11일 스위스-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면담

- 경기도와 스위스의 디지털 산업 경제협력 활성화 논의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스위스-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을 만나 양 지역 간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한 크리스티안 바세르폴렌(Christian WASSERFALLEN) 스위스-한국 의원친선협회 회장(스위스 국회 하원의원)을 비롯한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도-스위스 정부 간 공식 교류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오늘 방문단과의 면담은 새로운 협력관계의 물꼬를 튼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한-스위스 외교관계 60주년과 스위스의 중립국감독위원회 활동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경기도의 새로운 친구인 대표단 일행을 만나 매우 반갑다"라고 환영 인사를 했다.

이어 "경기도와 정보기술(IT),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정밀기계 등 미래산업을 활용한 신산업 분야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미래 신산업 발굴의 최적지인 경기도는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미래성장산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판교테크노벨리와 같은 첨단산업단지 개발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바세르폴렌 스위스-한국 의원친선협회 회장은 "스위스는 경기도가 전반적으로 모든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업이 소재하고 있고, 스위스의 디지털 전환에 경기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스위스의 미래 신산업을 경기도 소재 기업들과 발굴해 나가며 협력을 확대하자"라는 협력 의지를 밝혔다.

▲11일 오후 경기도청 5층 상황실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크리스티안 바세르폴랜 스위스 국회의원, 장 루크 아도르 스위스 국회의원, 이브 로버트 니데거 스위스 국회의원 및 기업인 등 20여명과 스위스-한국 의원친선협회 및 경제인 그룹 면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염 부지사는 "면담을 계기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찾아가자"라고 화답했다.

이날 만남은 스위스-한국 의원친선협회가 스위스-한국 외교관계 수립 60주년과 중립국감독위원회 활동 70주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경제인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경기도를 방문하면서 성사됐다.

스위스-한국 의원친선협회는 양국 간 의원외교 활성화를 위해 2007년 설립됐으며, 이번이 6번째 공식 방한이다. 크리스티안 바세르폴렌 국회의원과 이종배 국회의원이 공동 회장을 맡고 있다. 협회는 양국 친선을 도모하며 상호교류와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스위스-한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대표단과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조혜영/기자

오산시,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 인식개선 '함께 있고, 함께 잇다' 개최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오는 22일 복지관 앞마당과 프로그램실에서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함께 있고, 함께 잇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날은 매년 4월 20일로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했다.

이번 장애인의 날 행사는 오산시 지역주민 대상으로 사전 진행한 장애인식개선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과 장애인의 날 축하 공연 등이 예정되어 있다. 다양한 체험 부스와 복지정보 제공 부스 등과 더불어 지역주민 누구나 복지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OPEN복지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OPEN복지관'을 마련한 이유는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복지관의 사업과 역할에 대해 전달하기 위함이다.

복지관의 프로그램실 별로 다양한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장애인식개선 슬로건 문구를 공유하고 프로그램 사진을 전시하는 전시회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 전문봉사단이 전달하는 장애인식개선 소리극·샌드아트 공연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 전시 및 부채만들기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직무체험 ▲장애인 당사자가 알려주는 원예강습 ▲전문사진가가 찍어주는 인생사진관 ▲장애인 바리스타 음료 제공 등이 있다.

성도규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장애인의 날 의미를 나누며 본 복지관이 지역사회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함께 즐기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준비했다"며, "많은 분들이 함께해 자리를 크게 빛내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이천시 중앙로 상인회, 문화의 거리 자발적 환경정비 나서

이천시 중앙로 상인회가 10일 문화의 거리 내 설치된 벤치와 각종 조형물 청소, 쓰레기 수거 등 자발적인 환경정비에 나섰다.

이날 환경정비는 지난 달 새마을창전동협의회와의 대대적인 청소에 이어 상인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졌으며, 창전동 문화의 거리 내 무분별한 각종 쓰레기와 지저분한 벤치 정비 등을 진행했다.

중앙로 상인회는 앞으로 구역별 사정에 맞추어 매주 월요일과 매월 10일 등 자체일정을 정해 자율적으로 환경정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상인회 한 회원은 "창전동 문화의 거리를 찾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정비에 노력하겠다.

많은 시민들께서 문화의 거리를 찾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경정비에 함께 나선 이희종 동장은 "이천의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 창전동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동에서는 노후화된 벤치 도색과 함께 전선 조명줄 철거 등을 완료했다, 앞으로도 개방감 있는 거리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문화의 거리 제3구역에는 강아지똥 동화를 주제로 한 벤치가 도색 후 재설치되 눈길을 끌었다. 창전동은 앞으로도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성율/기자

안양시, 올해 학교급식 지원 261억여원 쓴다

안양시가 올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무상급식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친환경 우수 농산물 등 학교급식 지원에 총 261억3543만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시가 부담하는 학교무상급식비는 총 214억4149억원으로 경기도·교육청 예산과 함께 관내 유치원 39곳, 초·중·고교 86곳, 평생교육기관(안양상업고) 1곳 등 총 126곳에 지원된다.

이와 함께, 시는 친환경 우수 농산물 등 학교급식 지원에 46억9394만원(도비 포함)을 투입해 ▲친환경 무농약 쌀 차액 지원(5억4521만원)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17억8559만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3314만원) ▲친환경 가공식품 차액 지원(14억5000만원) ▲우수축산물 차액 지원(8억8000만원)의 5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친환경 가공식품 차액 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친환경 가공식품 품목 및 공급업체를 선별·선정하고 화학 첨가물·유전자 변형 농작물이 첨가되지 않은 가공식품의 공급을 지원한다.

또, 친환경 무농약 쌀 차액 지원 사업에 안정적인 쌀 공급을 위해 가평군·양평군과 '친환경 무농약 쌀 공급 협약'을 체결해 운영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보다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부천시, 민선8기 시민과의 약속 이행 '최우선'

부천시는 지난 11일 시청 창의실에서 실·국·소·단장 및 공약사업 추진부서장 등 관계 공무원 25명이 참석해 '민선8기 공약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그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주요 현안 사업 39건에 대한 추진실적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부천시 민선8기 공약사업은 총 147건으로 올해 1분기 기준 94%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완료 후 계속 이행 중인 공약으로 △우리동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산재예방 및 고위험 개선사업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보강으로 아이키우기 좋은도시 조성 △긴급보육이 필요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365일 시간제 보육 △시민들이 시정을 직접 평가하는 시민평가제 운영 △시민소통 열린시장실 운영 등이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공약사업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기 달성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달라"며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타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사업들은 부서 간 연계, 소통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천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추진방안 등을 보완하고 오는 10월 중 부천시민으로 구성된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부천시는 분기별 자체 점검을 통해 시 홈페이지에 공약 이행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과의 소통과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윤용민/기자

고양시, 2023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개최 준비 '착착'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9월 15일, 22일 각각 개막

고양특례시는 오는 9월, 1천4백만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축제 '제34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과 '제17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시는 전담 TF를 주축으로 사전 준비가 한창이다. 지난달 17일,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열어 공식적으로 대회 준비의 시작을 알린 이후 시민과 함께 슬로건, 마스코트 이름을 선정하는 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마스코트 '까비', '벼리·토리'와 함께… 시민 참여로 대회 상징물 선정

고양특례시는 다양한 공모전을 실시해 범시민적 동참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진행한 슬로건 공모전에는 총 728개 문구가 접수되어 시민 선호도 조사와 심사 위원회를 통해 최종 슬로건을 선정한 바 있다.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은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화합을 이루는 힘 경기',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같이 뛰는 심장으로, 함께 뛰는 생활체육'이 각각 대표 슬로건으로 활용된다.

대회 마스코트는 시조(市鳥)인 '까치'와 한반도 최초 재배볍씨인 '가와지볍씨'로 디자인했고 마스코트 이름 역시 시민들의 의견 수렴으로 결정됐다.

지난 3월 실시한 마스코트 명칭 공모전에는 총 176건이 접수, 서면 심사와 직원 설문조사를 거쳐 각 부문 최다 득표로 '까비'와 '벼리·토리'가 최종 선정됐다. '까비'는 까치의 첫음절과 날 비(飛)를 결합해 대회의 역동성과 힘찬 비상을 의미한다. '벼리'와 '토리'는 가와지볍씨의 '벼'와 쌀을 세는 단위인 '톨'을 기억하기 쉽고 친근감 있게 표현했다.

한편 까치의 날개를 형상화한 엠블럼은 미래를 향한 도약의 의지를 담았고, 푸른색은 한강, 녹색은 북한산, 머리 모양은 꽃봉오리와 가와지볍씨를 상징한다. 시는 대회 상징물을 적극 활용해 온·오프라인에서 홍보와 이벤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회 공식 홈페이지 구축… 경기 소식, 관광·먹거리·숙박 정보 등 제공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과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경기장 47개소에서 49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대규모 대회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홈페이지는 두 개의 대회를 각각 분리해 제작하고, 상호 연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인다. 또한 모바일,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기에 자동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언제, 어디서든 가독성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아울러 관광, 먹거리, 숙박 정보 등을 함께 제공해 시의 우수한 문화시설과 관광자원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대회가 열리는 9월에 일산호수공원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다양한 가을 행사와 연계 홍보할 계획이다.

현재 홈페이지는 경기도의 보안성 검토 등 사전 절차를 진행 중으로 개발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중 정식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야별 사전 준비 본격 돌입… 안전·친환경 대회 추진

고양특례시는 5대 전략을 바탕으로 종합 계획을 수립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략 내용은 ▲시민이 함께 참여·소통하기 ▲질서 있고 체계적인 안전한 대회 운영 ▲스포츠 경제도시 이미지 제고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경기도와 함께 47개 경기장을 지속적으로 합동 점검하고, 노후 시설은 개·보수를 진행해 철저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계획과 방역대책 수립과 함께 안전 매뉴얼을 제작할 방침이다.

시는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친환경 대회 추진에도 힘쓰고 있다. 개회식 행사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2월 약 17만KWh의 재생에너지 전기를 낙찰 받았다. 뿐만 아니라 개폐회식과 부대행사 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등 환경을 위한 세부 방안들을 검토 중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은 생활체육시설부터 국제규격시설까지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명실상부한 스포츠 도시"라며 "31개 시·군 선수단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시의 역량을 모아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주민 소통 민생현장 속으로' 끝마쳐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이 3월 2일부터 시작한 '주민 소통 민생현장 속으로'를 12일 문학동 방문을 끝으로 21개 동 현장 방문을 마쳤다.

새 학기 등교 현장, 자원 순환 가게 등을 방문해 학부모, 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학교 주변 시설물과 보행 환경 등을 점검했다.

더불어 동 현안 보고 시간을 마련해 각 동 주민자치회장, 통장자율회장 등 단체장들과의 만남을 통해 소소한 이야기부터 지역 현안, 동의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 등을 모두 청취했으며 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궁금한 점을 구청장에게 직접 들으며 민선8기 구정 운영 방향에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

학교 현장 건의 사항, 생활 불편 민원, 도로 정비, 녹지·공원 관리, 지역 현안 등 140여 건의 주민 의견을 청취했으며 단순 처리 사항은 동 중심 민원종합처리제를 통해 즉시 해결하도록 조치하고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 수반 사업 등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구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인천대로 기본계획, 수봉산 명소화, 승학산 예비군 훈련장 이전 등 사업들이 미추홀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며 "미추홀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주민분들도 함께 의견을 모아 달라"라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경남도, '친환경 항공기 기술 선도 발판 마련'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공모선정!

과기부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공모 선정…2025년까지 국비 55억 원 지원

경상남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시범사업'에 '수소연료전지 기반 하이브리드 분산 전기추진 시스템을 활용한 커뮤터기(19인승급 근거리 도시간 왕복여객기) 기술'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과학기술 현안을 발굴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상호보완 형태 연구개발(R&D) 과제로, 지방 과학기술 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사업이다.

경상국립대가 주관하고 UNIST, 울산대, 경남대,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본부 등 대학, 기관, 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과제는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기반 하이브리드 분산 전기추진 시스템을 활용한 단거리 이착륙 19인승 커뮤터기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정된 과제는 시범차원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국비 55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정부와 지역이 협력해 후속 지원 방안 마련 후 단계평가 등을 거쳐 최대 10년까지 추가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시범 사업인 1단계 세부 과제는 △항공용 액화수소 저장탱크 및 연료전지 파워팩 설계 핵심기술 개발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전원을 고려한 분산전기추진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분산전기추진 단거리 이착륙 커뮤터기 설계 등이며, 후속 사업인 2·3단계 최종 목표는 단거리 이착륙 커뮤터기 축소 기술 시연기 제작 및 시험평가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현재 지방은 지방소멸, 청년 인재 유출 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역이 주도적으로 연구개발(R&D)을 기획·추진하고 이에 따른 성과가 지역 산업계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혁신 생태계 구축과 지역 과학기술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은 5개 프로젝트와 이를 수행할 8개 광역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초광역협력형으로 첨단모빌리티(경남·울산), 이차전지(경북·대구), 인공지능(광주·전남)이, 지역혁신도약형으로 첨단바이오(전북), 해양바이오(충남) 등이다.

최정근/기자

영양군 '농업기계 안전사용 현장 실습교육' 실시

영양군에서는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농업기술센터와 영양읍 현리소재 실습포장에서 귀농귀촌 및 신규농업인 60명을 대상으로'농업기계 안전사용 현장 실습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평소에 사용해 본 적이 없는 트랙터와 관리기 기종의 취급조작법과 농작업 기술 등을 교육하며, 초보자도 스스로 농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별 지도한다.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로 기계화 이용률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교육과정 이외에도 임대사업 농기계의 활용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며 안전사고 예방 홍보책자와 야간반사스티커 3종도 배부한다.

또한, 상시교육 과정을 통하여 농기계의 올바른 관리방법과 정비요령 등을 지도하고 임대사업과 연계한 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윤칠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농업인의 안전사고예방과 농작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 기술지도를 위해 참여식 실습과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KBS 전국노래자랑 예심 열기 '후끈'

예천군은 오는 13일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예심을 진행한다.

이번 전국노래자랑은 제20회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이후 7년만에 15일 오후 1시 예천읍 한천체육공원 특설무대에서 공개녹화를 진행한다.

7세부터 91세까지 다양한 참가자들이 그동안 숨겨왔던 끼를 마음껏 펼치기 위해 총 248개 팀이 사전 신청을 했으며 사전 신청하지 못한 군민은 예심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제2의 이찬원이 되고 싶다는 초등학생을 비롯해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기 위해 참여한 중·고등학생들, 예천군을 알리고 싶다는 귀농인,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손녀,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나온 남편 등 지원자들의 열기로 예심 현장이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치열하고 공정한 예심을 거쳐 15개 팀이 본선에 진출할 예정이며 본선 녹화는 개그우먼 김신영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초대 가수로 조항조, 이혜리, 윙크, 신승태, 은가은 등이 출연해 무대를 빛낸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KBS 전국노래자랑은 6월 4일부터 7일까지 예천스타디움 일원에서 열리는 제20회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군민들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해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 동래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건강 걷기대회 성료

부산 동래구는 지난 7일 온천천 일대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기원하는 구민 건강 걷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래구민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걷기대회 행사는 장준용 동래구청장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부산에 유치해!" 선창을 시작으로 참가자가 따라 하는 퍼포먼스, 유치 염원 걷기 등을 통해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향한 구민의 염원과 응원 결집을 보여주었다.

걷기 구간은 온천천 인공폭포에서 안락동 카페거리까지 약 2.5km로 참가자들은 유채꽃이 활짝 핀 봄기운 가득한 산책로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비에도 동참하는 등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부산의 재도약을 꿈꾸는 프로젝트이며,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는 동래와 세계 속에 부산을 널리 알리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더불어 오늘 걷기대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움츠러든 몸과 마음에 건강과 활기가 가득 차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송종진/기자

김광열 영덕군수, 여성단체 봉사현장 찾아 '열린 소통'

올들어 3번째 '현장 소통의 날' 운영해 각계·각층 의견 군정에 반영

영덕군은 10일 축산면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영덕군여성단체협의회를 찾아 '현장 소통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현장 소통의 날'은 김광열 영덕군수의 공약이자 민선 8기의 5대 군정 목표인 '마음 나누는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장에 있는 각계·각층의 생생한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올해 2월을 시작으로 매월 1회 주요 부서 실무자들을 대동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대표들을 만나 경영 고충과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3월에는 최근 꿀벌 집단 폐사를 겪은 지역의 양봉농가를 만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3번째를 맞은 이번 소통의 날 행사에서 김 군수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된장을 담그기 봉사에 나선 영덕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 20여명과 함께 직접 봉사에 참여하며 지역 여성 리더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 회원들은 경로잔치 확대 운영,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반찬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 지원을 요청했으며, 김 군수는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지원 검토를 현장에서 지시했다.

한편, 영덕군여성단체협의회는 이번 행사를 위해 2월부터 메주를 씻어 장을 담가 오는 11월 250통가량을 배분해 각 경로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된장 나누기 봉사뿐만 아니라 지역의 양성평등과 여권신장 등 다양한 분야에 힘쓰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장문화/기자

문경시 도시재생, 찻사발공방 – 갤러리 문경, 문자향 전시 운영

문경시와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찻사발공방 전시관 "갤러리 문경"(점촌1길 14-6번지)에서 「문자향(文字香)」을 운영한다.

찻사발공방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전시는 한자(전서, 예서, 행서, 해서, 초서), 한글(판본체, 궁체, 흘림체, 현대 캘리) 등 다양한 서체를 한자리에 전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글씨의 아름다움과 서예의 역사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전시 운영은 04.04.(화)~05.13.(토) 12:00~17:00까지 일,월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된다. 점심시간을 활용해서도 방문 할 수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방문 바란다. 오픈행사로 4월 7일(금) 17:00에 참여작가와의 만남, 작품 소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자향 전시는 소호(권미연), 계암(권오택), 묵산(권정구), 송천(김동운), 완석(박정순), 동암(양재동), 눌제(이승환), 도홍(김상지), 연농(김순희), 월하 (김용미), 소여(박강모), 청재(신동인), 서단(어선미), 진우(변강정) 작가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전시는 문경 시민이나 관광객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이 전시와 관련하여 문화꾸러미창작소(점촌로 7)에서 4월 6일(목) 10시부터 청운 김영배강사의 "한중서예와 전각의 만남"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 사전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 바란다.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소개 등은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를 참고하면 된다.

김동현/기자

통영시, 사량 능양마을 복지회관 준공식 개최

섬 개발 사업으로 장애물 없는 사랑의 복지회관 준공

통영시는 지난 4월 11일 사량 하도 능양마을에서 시장, 지역구시의원과 사량면 자생단체장 등 마을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회관 준공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능양마을 복지회관은 지난 2022년 11월에 착공해 4억여원의 예산으로 건축면적 132㎡의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의 현대식 건물로, 능양마을 주민들의 쾌적한 소통의 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하게 됐다.

특히, 마을 주민들이 직접 복지회관의 부지를 마련해 고령화된 마을 주민들을 위해 장애물 없는 시설로 만들어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함을 증대시켰다.

또한, 단층 건물로 설계해 기존 경로당이 마을회관 2층에 있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줬던 문제도 말끔히 해결해 고령친화적 행정에 한발 더 나아갔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능양마을 복지회관이 어르신들과 주민 모두에게 한층 편안한 휴식처가 됐으면 한다"며 "오늘 준공식을 계기로 능양마을 주민들이 더욱 화합하고 살기좋은 마을 공동체로 거듭 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용준/기자

의성군, 경북 4-H 연합회 체육대회 개최

의성군은 경북 서북부 9개시군 4-H연합회가 11일 4-H회원, 4-H본부 및 지도자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성군 청년테마파크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의성군 4-H연합회가 주관했으며 의성군을 비롯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예천군 등 9개 시군이 참여했다.

2019년 안동시에서 개최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열리게 된 이번 체육대회는 4-H이념인 지·덕·노·체를 바탕으로 4-H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및 농업정보 교류 등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는 의성군 4-H연합회 김재승 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우수회원에 대한 시상과 탁구, 컬링 등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화합행사로 유대를 강화하고 협동정신을 함양하는 한마당 축제로 진행됐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4-H 체육대회가 의성군에서 개최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청년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소통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에서 개최해야하는 이유...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로 화룡점정(畵龍點睛) 찍겠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는 경주의 미래를 위한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유치 의지를 표명했다.

주 시장은 4월 정례석회에서 "지난해 경주시는 1조 103억원의 국도비 확보를 비롯해 예산 2조원 시대를 열었고, 新형산강프로젝트를 비롯한 사상 최대 정부공모사업 선정,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달성, SMR국가산업단지 유치 등 그 어느 때 보다 눈부신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경주의 미래 백년대계를 앞당길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로 마지막 화룡점정을 찍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을 놓고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한창이다. 미·중·일·러 4강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1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정상회의 개최 도시가 얻게 될 유무형의 사회경제적 유발 효과는 상상 이상일 전망이다.

지금까지 경주를 비롯해 인천, 제주, 부산 등 지자체가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우며 뜨거운 유치전을 펴고 있다. 이처럼 여러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주시도 일찌감치 유치 도시 도전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이자 국제회의도시에서 첨단과학산업도시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경주시의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살펴보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의미하는 APEC은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12개국 간 각료회의를 시작으로, 1993년부터는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명실상부한 역내 최고 위급 지역경제협력체로 발전했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함께 APEC 창설을 주도했으며,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인 1991년 이미 서울 각료회의를 개최해 헌장격인 '서울선언'을 마련한 바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APEC 출범과 함께 이미 주도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2005년 제13차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며, 또 하나의 대역사를 만든 바 있다. 지난 2015년 필리핀에서 열린 제23차 APEC 정상회의에서는 2025년 정상회의를 또 다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의 외교·경제·문화적 영향력을 세계로 확산하고,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방균형발전 등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경주시는 세계문화유산이 집적된 도시에서 처음으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면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이목의 집중으로 국격을 한 단계 올리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며, 수도권이 아닌 소규모 지방도시에서의 개최는 APEC '비전 2040'의 포용적 성장과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균형발전 가치 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도시로 한국의 찬란한 문화를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경주다. 한마디로 가장 한국다운 도시인 것이다. 지난 수년간 APEC 교육장관회의, 제7차 세계물포럼, 제14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등 대형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과 충분한 역량도 갖추고 있다.

각국 정상의 경호와 안전을 위한 입지적 조건도 아주 우수하다. 정상회의가 열릴 경주 보문관광단지는 회의장과 숙박시설 간 이동 동선이 매우 짧을 뿐 아니라 다른 후보도시와 달리 바다에 접해있지 않고 호리병처럼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정상 경호와 안전에 완벽한 통제가 가능하다. 2005년 APEC이 부산에서 개최됐을 때도 한미정상회담은 경주서 열렸는데 회담장소인 보문단지 일대가 경호에 최적지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선보이기 위한 적지 또한 경주다. 경주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월성원자력발전소, SMR 연구개발의 전초기지가 될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양성자가속기센터,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가 있다. 특히 최근 SMR 국가산업단지 선정은 세계에 우리 원전산업을 세일즈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포항, 울산, 구미 등 산업도시와 인접한 경주는 다양한 산업시찰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최적지이기도 하다.

단순히 회의만 한다면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편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제대로 알리고 싶다면, 그 도시는 반드시 경주가 되어야 한다. 개최도시의 유불리를 떠나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린다고 상상해 보자. 행사가 열리는 11월은 형형색색의 단풍이 최절정에 달하는 시기다. 세계 정상들이 한복을 입고 불국사, 동궁과 월지, 첨성대, 월정교 등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진다면 그야말로 감동 그 자체가 아닐까.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정상회의는 단순히 회의를 한다거나 도시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전통과 경제발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국격 상승과 국가자긍심을 고취하는 국제회의"라며,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된 보문관광단지는 지리적 특성 상 정상 경호와 안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살려 가장 한국적 이미지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경주야 말로 정상회의의 최적지라 자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APEC 정상회의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포용적 성장을 지향하는 APEC의 관례"라며 "현재 유치 의사를 피력한 도시 가운데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로,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방도시인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해야 할 충분한 명분과 당위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주시는 지난달 30일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돌입했다. 이에 발맞춰 대정부 유치 활동과 시민의 유치 공감대를 확산하는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중에 눈에 띄는 경주시의 유치 전략이 또 있다. APEC 정상회의는 각국 정상이 대거 참가하는 국제행사로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를 주목하므로, 이에 걸맞은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해 이번 기회를 선진 시민의식과 문화 정착의 터닝 포인트로 활용하겠다는 게 경주시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칭찬하기, 주인의식 갖기, 공익 우선 및 배려하기 등 시민의식 함양 4대 과제를 선정했다. 범시민추진위원회 소속 단체를 중심으로 주체적 역할을 부여하고 시민사회 각계각층에서 민간 주도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생활환경·교통·행락질서 등 3대 기초질서 지키기를 추진한다. 분야별 실천다짐대회와 더불어 연중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경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친절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정상회의 유치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로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혁신할 방안을 추진한다.

친절, 청결, 신용, 안전 등 관광선진화 4대 실천운동과 관광 인프라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친절하고 안전한 손님맞이 준비 태세를 갖춘다. 4대 과제별 세부실천 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숙박업, 음식업, 운송업, 관광업소 등 서비스 업종의 자율 실천을 점검하고 민관 합동 친절교육과 언론과 연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주요 관광지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정비하고 외국어 안내판과 편의시설의 개선, 노후·불량 시설에 대한 개체 독려, 화재와 위생, 방역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관광서비스 체계 선진화와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윤타용/기자

경북도 광역화재안전조사단, 대형물류창고 5개소 현장조사 실시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분야별 전문가 물류창고 위험요소 점검

경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1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 도내 대형 물류창고시설 5개소에 대해 소방본부 단위의 광역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상별로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분야 조사단원 8~9명을 투입해 화재 원인이 되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분야별로 점검했다.

물류창고는 화재 거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화재 강도가 일반 건축물에 비해 3배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대부분 천장고가 높고 대공간인 경우가 많아 화재 감지 및 방화구획의 성능 확보가 곤란해 화재 발견 및 진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도내 물류창고 시설 중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연면적이 큰 대상 5개소를 선정해 실시했으며, 각 분야 전문가의 합동 안전진단으로 분야별 위험 특성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실시했다.

조사결과 소방 분야에서는 보관 물류에 의한 소방시설 앞 물건 가림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지연 등 불량사항이 발견돼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과태료 및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병행했다.

건축분야는 지게차에 의한 일부 구조체 훼손과 배관 및 케이블 등 밀실시공 불량이 발견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보수작업을 지시했다.

전기분야는 노출 콘센트 및 금속배관 손상과 콘센트 회로 차단기 용량 과대 및 일부 누전차단기 미설치 사례 발견됐으며 전기 지게차 충전시설이 실내에 분산 설치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실외에 설치하고 충전 중 이상 전압 발생에 따른 화재안전 대책이 필요했다.

가스분야에서는 일부 입상배관 및 소형저장탱크 배관 부분 부식과 지게차로 인한 배관 파손 우려에 대비해 도색 및 배관 보호판 설치 등을 개선 권고했다.

대형 물류창고 시설은 화재 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화재에 대비해 소방시설 사용법을 포함한 자위소방대의 역할을 숙지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위험요소 중 25건은 즉시 현지 시정 조치했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인 지도、교육을 실시했으며,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 63건은 과태료 등 행정명령 및 개선 권고 조치하고 이행 여부를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물류창고 관련 시설물의 화재 예방과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에 대해 유관기관과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이고 빈틈없는 예방행정을 지속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활짝 핀 관광의 봄! 관광도시 대구여행의 찐매력을 알린다"

박람회기간 봄 낭만 힐링 관광지·축제 홍보, 입체포토존·체험존 운영

대구광역시는 다가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국내·외 최신 관광정보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2023 내나라여행박람회'에서 '대구 봄향기에 빠져 봄'을 주제로 낭만적인 대구 봄 관광 명소를 알리는 관광 홍보관을 운영한다.

160여 개 기관 및 업체, 260여 부스 규모로 참가하는 '2023 내나라 여행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관해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여행 전문 박람회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회복 전환으로 증가하는 여행수요에 발맞춰 대구 관광홍보관은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행사를 준비해 잠재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대구광역시는 이번 관광박람회에서 달토끼 조형물이 인상적인 대구 대표 야경명소 '앞산전망대'를 비롯해 싱어송라이터 김광석 삶을 테마로 조성한 '김광석다시그리기길', 돌담길이 아름다운 '옻골마을', 대구 최대 규모의 '옥포이팝나무군락지' 등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봄 데이트 명소와 5월 12일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전야제를 시작으로 막을 올리는'2023 판타지아 대구페스타' 봄시즌 축제(파워풀대구페스티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대구생활문화제, 대구 탑밴드 경연대회, 대구국제음악제, 대구국악제, 파워풀K-트로트 페스티벌)를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홍보관 입구에는 가족나들이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유명한 수성못 벚꽃길을 주제로 입체 포토존을 설치해 방문객들이 대구의 봄 정취를 사진에 담아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대구 아름다운 관광명소 초성 맞추기 행사와 봄꽃(압화) 풍경 만들기, 대구 대표 관광지를 일러스트로 제작한 포토키오스크 운영, 대구 대표 캐릭터 '도달쑤' 인형과 사진촬영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해 대구 관광부스를 찾는 참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대구만의 관광 매력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오미희 대구광역시 관광과장은 "이번 박람회는 봄을 맞이해 대구의 아름다운 관광자원과 즐길 거리를 많은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회복 전환으로 증가하는 관광 수요에 부응해 대구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경북도는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실시해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시군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 등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지난해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등에 경북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구달서구, 결혼에서 육아까지 함께 고민해 드려요

4. 18.(화) 미혼에서 기혼으로 코미디 가족 토크쇼 운영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4월 18일 오전 10시 30분 달서아트센터 와룡홀에서'결혼에서 육아까지'고민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코미디 가족 토크쇼를 개최한다.

'코미디 가족 토크쇼'는 미혼에서 기혼으로 가는 과정을 그리며 기혼 여성들의 육아 고민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스탠드 형식의 코미디 토크쇼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임신에서 출산, 육아를 겪으며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관객들의 참여를 통해 이들의 사연을 함께 들음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로와 웃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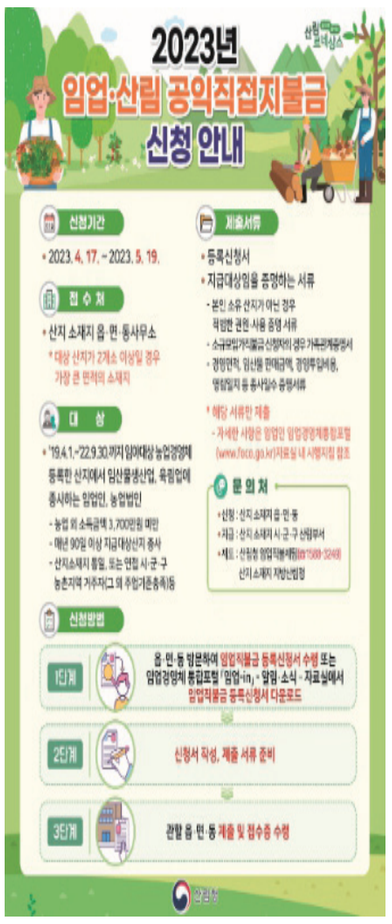
또한, 대구 출신 개그우먼인 김영희와 조승희가 오직 입담만으로 '동상이몽? 동갑이몽!' 이라는 주제로 관중과 소통하며 진행된다.

참가는 달서가족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선착순 마감이며 참가비는 5천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달서가족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달서구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힘든 삶을 응원하고자 2016년 7월 13일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하였으며, 2018년 9월 6일에는 '친구(9)에서 육(6)아까지'의 의미를 담아 전국 유일 '결혼특구도시 달서구'를 선포하는 등 미혼남녀 만남행사, 결혼공감대 확산, 출산·육아 지원 등 다양한 결혼친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미혼에서 기혼으로 임신에서 출산, 육아를 겪으며 힘들어 하는 모든 육아맘에게 위로와 웃음이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살고 싶은 아름다운 농촌마을'청송' 부남면 양숙2리 마을만들기사업 준공

청송군 부남면 '양숙2리 마을만들기사업'이 준공됐다.

군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4월 11일 본 사업으로 조성한 부남면 양숙2리 마을회관(양숙리 50-4번지)에서 '양숙2리 마을만들기사업' 화합의 날 행사를 열었으며, 윤경희 청송군수를 비롯한 도의원, 군의원, 사업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다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청송군은 '자연 속 숲 내음 가득한 살고 싶은 양숙2리 마을 만들기'라는 기치를 내걸고, 2020년부터 총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마을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마을회관 신축과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해 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살고 싶은 아름다운 농촌마을, 양숙2리 마을만들기를 위해 애써주신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 더욱 마을을 잘 가꾸어 청송군을 대표하는 동네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명호면 치매보듬마을 주민과 함께 걷기 공간 조성

봉화군보건소는 11일 명호면 양곡1리 경로당 주변 거리에서 치매 어르신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걷기 길을 조성했다.

이날 행사에는 치매보듬마을 주민 30명이 참여했으며 마을 주민들은 직접 걷기 공간을 찾고 위험물을 제거하며, 안내판을 설치했다.

걷기 길 조성으로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지역주민들이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신체활동 증가를 통해 일상에 활력을 줘 우울감 해소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치매보듬마을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치매 예방 및 치매 인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치매가 있어도 이웃의 관심과 배려로 안전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경북콘진원'문화콘텐츠 기업지원사업'공모

– 콘텐츠산업 성장 •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5월 16일까지 접수 –

– 창업 3년 넘은 도내 기업 3곳 선정… 최대 3천5백만원 지원 –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경북문화콘텐츠 기업지원사업>을 오는 5월 1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북도내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콘텐츠를 발굴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콘텐츠 제작지원금은 총 1억여원(과제당 최대 3천5백만원 이내)으로 총 3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공모 방식은 자유공모 방식이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장르로 확장하거나 부가사업을 펼칠 계획이 있으면 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한지 3년이 넘은 콘텐츠기업으로 경북에 본사 등록을 한 기업이다. 또한 사업화 단계가 명확하고 판매 및 유통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지원분야는 지역 특산물, 가공품, 굿즈, 관광기념품 등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드는 문화산업 전반이다.

이종수 원장은 "이 지원사업은 지역의 특색 있는 콘텐츠개발의 성장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콘텐츠 산업의 단계적 도약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5월 16일까지며 상세한 정보는 진흥원 홈페이지(https://gcub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e-mail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윤근수/기자

안동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한 민관협력 '맞손'

'가스 • 수도검침원, 집배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안동시 관내 가스 . 수도검침원, 집배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첨병으로 나설 전망이다.

안동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협력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안동우체국, 대성청정에너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북도회 북부지부가 참여했다.

시는 참여기관과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복지 위기가구 지원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지역 내 위기가구를 예방 및 선제적으로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가스 . 수도검침원, 집배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복지위기 가구를 발굴해 안동시에 조사 의뢰를 하면 안동시는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공적서비스 신청 및 자원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지원에 나선다.

특히, 안동우체국은'복지등기우편서비스'제도를 이번 협약을 통해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등기우편서비스는 안동시가 단전·단수·공과금 체납 등 위기 상황이 의심되는 가구를 선정해 복지등기 우편을 발송하면 집배원이 등기우편을 배달하면서 해당가구의 주거환경과 실태를 파악해 안동시에 회신하는 사업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관이 협력해 선제적으로 복지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2023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컴백 신바람 퍼레이드' 경연 참가팀 모집

20명 이상 단체 누구나 16일까지 신청 가능

영주문화관광재단은 2023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컴백 신바람 퍼레이드 - 선비의 산책' 경연 참가팀을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재단에 따르면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이자 2013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됐던 '신바람 퍼레이드'가 올해 '컴백 신바람 퍼레이드 - 선비의 산책'으로 10년 만에 부활해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 둘째 날인 5월 6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퍼레이드는 서천 둔치 일원에서 개최된다.

서천은 영주 중심을 관통하는 영주의 상징이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쉼터이자 안식처이다. 이번 퍼레이드는 영주시를 하나로 잇는 서천처럼 지역 전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컴백 신바람 퍼레이드 - 선비의 산책'은 시민과 관광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여팀에게는 팀당 50만원의 참가비가 지원된다.

퍼레이드는 서천 생활체육공원에서 시작돼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거쳐 주무대가 위치한 시민운동장 앞 서천 둔치까지 이어진다. 경연 참가팀은 인라인 스케이트 근처 경연장에서 팀당 30초 경연을 펼친다.

경연에서 우수한 결과를 거둔 팀에는 최우수상(1팀) 300만원, 우수상(1팀) 100만원, 장려상(2팀)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재단 관계자는 "축제에 부합하는 주제를 가지고 서천 둔치를 뜨겁게 달굴 준비가 된 모든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경연의 심사는 전문 심사위원을 모집해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임종식 경북교육감, 동북아역사재단과 독도교육 활성화 협약 체결

독도교육으로 올바른 영토관 정립 및 세계 시민의식 함양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12일 웅비관에서 동북아역사재단과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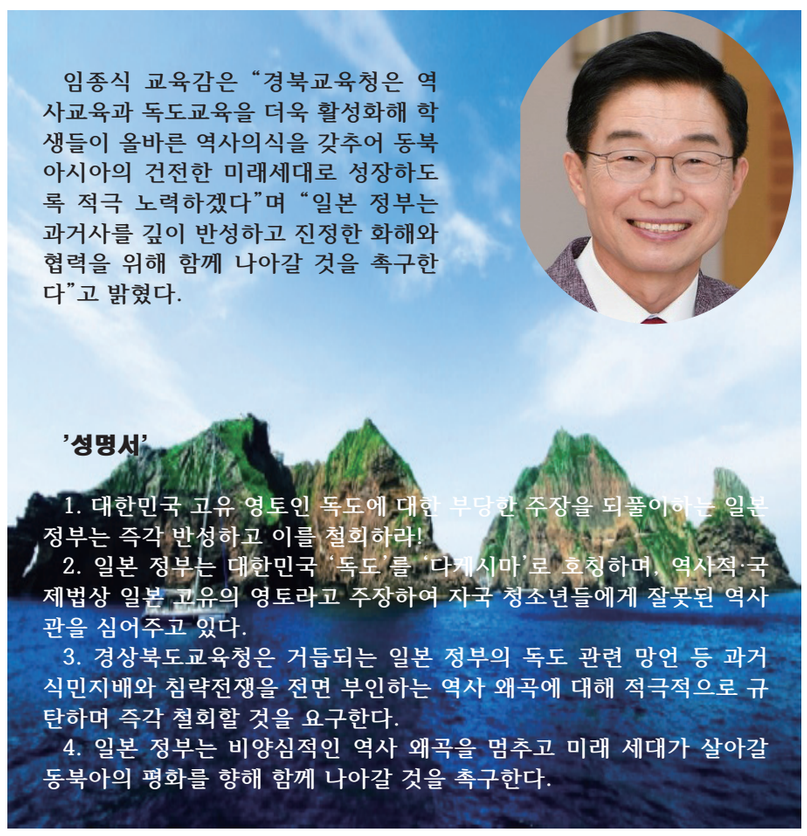
이번 협약은 경북교육청과 동북아역사재단이 독도교육을 통해 올바른 영토관과 역사관을 확립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내용은 △독도교육 콘텐츠 활용 △초·중등 독도 동아리 육성 및 활성화 △독도교육센터 구축 시 콘텐츠 지원 △독도교육 관련 콘텐츠 상호 활용 및 교류 △기타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및 교류 협력 등이다.

경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온라인 독도교육 플랫폼'사이버독도학교'를 개교해 활발한 독도교육을 펼치고 있으며, 향후 울릉도 (구) 장흥분교에 독도교육센터를 건립해 학생과 교원의 독도 탐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동북아역사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우수한 독도교육 콘텐츠를 교류하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독도교육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협약 체결의 소감을 밝혔다.

윤근수/기자



공기와 풍광 좋은 구례로 어서들 살러 오세요!

토지면 상죽윗마을 귀촌주민들, 자발적인 이웃 초청 행사로 귀농 .귀촌인 유치 펼쳐

전남 구례군은 지난 4월 8일 토지면 문수리 상죽윗마을에서 귀농.귀촌인들이 마을 조성 기념으로 이웃 초청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상죽윗마을로 먼저 귀농.귀촌한 6가구가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 하루빨리 구례군으로 귀농.귀촌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마련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행사에 김순호 군수, 이현창 도의원, 군의회 의원, 마을주민, 토지 소유자 등 100여 명을 초대해 마을 도로 개통을 축하하고, 도로부지 기부자 및 상죽윗마을 조성 주민 공로자들께 감사의 선물을 전하고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펼쳤다.

행사에 참석한 문수마을 김종복 이장은 "예로부터 문수마을은 공기 좋고 물이 맑을 뿐만 아니라 풍광도 좋아서 외지 분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어 다른 읍면에 비해 귀농귀촌 인구가 많다. 이분들과 토박이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는 마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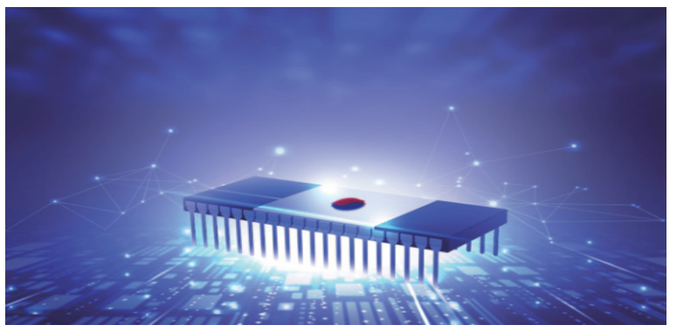
류효숙 토지면장은 "자발적으로 이웃초청 행사를 준비해 주신 귀촌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우리 토지면으로 작년 한 해 동안 84세대 105명이 귀농.귀촌했다. 7개 읍면 중 가장 많았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은 하늘이 내려준 힐링 산촌 문수마을에 하루 빨리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현/기자

전남도-광주시, 차세대반도체 원천기술개발 국가공모 선정

'~신경모사 반도체'사업…최대 10년간 국비 200억 들여 추진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초광역 협력 과제로 추진한 '시각(슈퍼비전) 인공지능(AI)을 위한 겹눈 모방 신경모사(뉴로모픽) 반도체'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됐다.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공모는 과학기술 자원의 지역별 편중·격차를 해소하고, 장기적 관점의 원천기술 개발 등 지역의 자생적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4개 권역에 총 5개 과제가 선정됐다.

특히 차세대반도체 분야로는 광주·전남이 유일하게 선정돼 반도체 특화단지 공동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시각(슈퍼비전) 인공지능(AI)을 위한 겹눈 모방 신경모사(뉴로모픽) 반도체' 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68억 원을 들여 겹눈 모방 단위 소자 개발 및 다층 신경모사 연산망을 구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1단계 평가 통과 시 2032년까지 최대 10년간 200억 원 이내의 장기적 국비 지원을 통해 1단계에서 개발된 차세대반도체 기술을 빠른 정보 처리, 저전력화 필요 제품에 접목하는 실증과정을 거쳐 인공지능형 무인이동체 적용 반도체 제품을 지역 기업과 협업해 상용화하게 된다.

차세대반도체 핵심기술인 이종접합 원천기술 개발을 활용한 제품 상용화는 지역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광산업 기업에도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에는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광기술원, 전자분야 핵심 부품 생산 기업인 한국알프스(주), 최첨단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주)네패스, 인공지능 반도체 팹리스(설계) 기업인 (주)사피온코리아, (재)광주과학기술진흥원, (재)전남테크노파크 등 지역 대학, 기업,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김용승 광주시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은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차세대반도체 기술 개발을 통해 정보 처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각 기술 발전의 핵심 요소인 속도와 전력 최적화를 실현해미래 첨단 분야 먹거리인 무인이동체 분야를 선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광주·전남 상생 1호 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광주시와 원팀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충실하게 수행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이끌 반도체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해명/기자

제93회 남원 춘향제 '춘향, 빛을 그리다' 1차 상황보고회 개최

남원시는 제93회 남원 춘향제 '춘향, 빛을 그리다'를 주제로 오는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광한루 및 요천 일원에서 개최한다.

시는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4월 11일 제1차 상황보고회를 갖는다. 상황보고회에서는 축제 주관 단체들과 남원시 전 부서가 참석하여 축제의 전반적인 흐름과 축제 운영에 대한 각 부서별 추진 계획 및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행사 중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축제 계획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브리핑과 함께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로 진행되며 행사종목, 기반시설, 의전, 지원 등 축제 준비에 대한 세부적인 준비상황 점검이 이루어진다.

축제준비위원회는 1차 상황보고회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축제로 자리매김한 남원 춘향제는 올해로 93번째를 맞았다. 광한루원의 완월정과 예촌 마당, 요천의 무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춘향제는 5월 25일 춘향제향을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번 춘향제는 '춘향, 빛을 그리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통과 첨단의 빛', '사랑과 낭만의 길', '공연과 체험의 멋', '먹거리와 국악의 흥' 등 4개 테마로 진행된다.

특히, 메인 테마인 '전통과 첨단의 빛'은 전통 꽃등과 드론의 화려한 야광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축제에 참여한 사람이면 누구나 한복을 입고, 직접 만든 꽃등을 들고 거닐 수 있으며 색색이 꽃등의 불빛으로 낭만적인 춘향제 밤풍경이 펼쳐질 예정이다. 요천 벚꽃길과 둔치 주변에 꽃등과 갈대조명이 설치될 되어 은은함을 더한다. 또한 강 위에는 수백 개의 LED종이배가 띄어질 예정이며 밤하늘을 수놓을 형형색색의 불꽃놀이와 드론이 펼치는 야광쇼가 화려함을 더해 전통과 첨단의 조화가 어우러질 예정이다.

남원 춘향제는 우리나라 전통 축제지만 세대가 넘나드는 축제로 MZ세대를 비롯해 남녀노소, 국내외국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한층 풍성해진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춘향에 관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있으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예술행사와 각종 무대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첫째 날인 25일에는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의 자국 전통의상과 우리의 전통의상인 한복의 콜라보 패션쇼를 선보여 외국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을 위한 뮤지컬 춘향 공연이 무대에 오르며 농악과 탈춤공연으로 축제현장에 흥겨움을 더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26일에는 춘향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춘향선발대회가 열린다.

셋째 날인 27일에는 청소년 댄스 공연인 '스피릿 춘향 몽룡 파이터'가, 넷째 날인 28일은 MZ세대를 위한 공연이 마련되어 있다. 팝과 전자음악이 결합된 EDM파티인 '춘몽페스티발'과 거리 공연 '춘몽 버스킹', 치어리딩 공연인 '춘몽응원전' 등이 진행된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퓨전국악공연인 '조선팝공연'과 흥·신명·멋이 어우러진 국악공연과 남도전통춤가락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그 밖에도 춘향전의 명장면을 2km 코스의 길놀이로 구성한, 춘향제의 대표 콘텐츠 '춘향제 대동 길놀이'를 비롯하여 '춘향 그네뛰기 체험', '민속씨름대회', 천연염색,한지등,노리개를 직접 만드는 '전통 체험'과 자치기,투호,아기사방,공기놀이의 '전통놀이' 등 우리의 전통문화의 가치를 드높이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시에서는 5일간 진행되는 축제인 만큼, 행사에 참여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관광객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주차장을 운영하고 구간별 교통통제등 철저한 교통 대책을 마련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위해 시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남출/기자

장흥군, '알리, 한동준 with 오케스트라' 특별공연 열어

장흥군은 오는 4월 20일 저녁 7시 30분 장흥문화예술회관에서 플래시 콘서트 '알리, 한동준 with 오케스트라'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에는 독특한 음색과 뛰어난 표현력으로 대한민국 대표 여성 보컬로 자리매김한 가수 알리가 출연한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KoCACA)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군민 문화향유 향상을 위해 개최되는 공연이다.

출연자는 가수 알리(대표곡 서약), 한동준(대표곡 사랑했지만), 개그맨 김재롱(개그콘서트 납득이), 지휘 박상현(서울 필하모니 합창단장) 등으로 구성됐다.

공연은 대중가요와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진행된다.

관람료는 전석 10,000원이며 입장권은 인터넷 티켓링크 또는 장흥문화예술회관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장흥군은 2023년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 원년의 해 선포에 발맞추어 장흥군문화예술단체연합회를 발족한 이래, 관내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군민들을 위한 여러 공연들을 지속 선보일 예정이다.

김성 군수는 "이번 공연은 2023년 장흥군 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 원년 선포 기념 첫 콘서트로 의미가 있다"며 "수준 높은 공연을 적극 기획하여 연중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반갑다! 강진 마량놀토수산시장!"

LED 바다분수, 에어바운스, 가요 경연대회 등 이색 즐길거리 풍성

전남 강진의 대표 관광명소 중 하나인 마량놀토수산시장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주말 관광객 유혹에 나섰다.

11일 강진군에 따르면 제7회 마량놀토수산시장이 청정 마량항에서 오는 4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30회에 걸쳐 열린다.

지난 2015년 5월 첫 개장 이후 지난해까지 99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을 정도로 강진군의 대표 효자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해 온 마량놀토가 민선 8기 들어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 준비된다.

우선 110m 길이의 화려한 LED 바다 분수와 미디어 파사드, 에어바운스 놀이기구 등 기존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추가했으며, 가요 경연대회 '노래가 좋단마량' 프로그램도 신규 편성했다. 월별 예선을 거치고 10월 28일 최종 결선을 통해 각 상의 주인공을 가르며, 최고 2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또 매월 마량놀토와 어울리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회도 진행한다.

또 제철 수산물을 활용한 이벤트도 추진한다. 봄철 갑오징어와 주꾸미를 시작으로 여름에는 농어와 갯장어(하모)를, 가을에는 전어와 꽃게, 낙지를 앞세워 방문객의 입맛과 흥을 돋울 예정이다.

지역 특산물인 전복을 활용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 더욱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다만, 즉석 회뜨기 쇼는 행사장에 방문한 아이들에게 다소 잔인하게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올해 이벤트에서 제외시켰다.

마량놀토의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인기가수 콘서트와 팬 미팅도 마련했다.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마량 전망대카페에서 가수 김현진, 권도훈, 정다한과 팬클럽, 군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초청 공연과 노래 강습이 펼쳐진다.

여기에는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마량놀토의 상징과도 같은 '3최·3무' 원칙은 온전히 이어가면서, 더 많은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선보이겠다는 복안이 담겨있다.

'3최(最)'는 최고 신선, 최고 품질, 최고 저렴을 뜻하고, '3무(無)'는 수입산, 비브리오, 바가지 요금이 없다는 관광객과의 약속을 의미한다.

마량놀토 개장식은 22일 오후 3시 시장 내 특설무대에서 열리며, '장구의 신' 박서진, 유지나 등과 함께하는 목포 MBC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현장 녹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진원 군수는 "관광객은 청정해역의 싱싱함과 즐거움을 만끽하고, 지역민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면서 "한국의 나폴리로 불릴 만큼 아름답고 깨끗한 마량항에서 맛있는 회도 드시고,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윤호/기자

화순군,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모집 사업설명회 개최

최종 선정 주민사업체, 최장 5년간 최대 1억 1000만 원 단계별 지원

화순군은 '2023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12일 화순읍에 위치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세미나1실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화순군 정경은 관광두레PD의 진행으로 관광두레 사업 설명과 신규 주민사업체 모집 참여 방법 안내와 질의응답 등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관광두레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숙박·식음·기념품·여행·체험 등 분야의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이다.

주민사업체 모집은 관광두레 사업지역 전국 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총 30여 개 주민사업체를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사업체는 화순군 관광두레PD의 협의를 거쳐 오는 27일까지 관광두레 누리집으로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주민사업체는 오는 6월 온라인 아카데미 교육 이수 후 2차 발표 평가를 통해 6월 말 최종 선발된다. 선정된 관광두레사업 주민사업체는 지역 대표 관광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장 5년간 역량 강화, 컨설팅, 파일럿 사업, 홍보·마케팅 등 최대 1억 1000만 원의 성장 단계별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정경은 관광두레PD는 "2023년은 방역규제 해제로 일상이 다시 회복되고 관광산업이 살아나고 있어 지역관광분야 도약에 아주 중요한 시기다"며, "화순군의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 조성을 위해 주민공동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경호/기자

김관영 전북도지사, 역점 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조수진 의원 만나 현안 건의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도정의 역점 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과 세종을 넘나들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 지사는 11일 국회를 방문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직접 찾아가 도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담은 주요 현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먼저,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에 적용되는 광역교통시설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실제 전주권 광역교통 통행량이 광주권과 유사한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조속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더해 지역의 오랜 현안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아울러, 지난 2021년 12월 새만금위원회에서 금강호 내 용수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공급하는 '2026년 용수공급계획'을 결정한 만큼,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시설 총사업비 일괄 승인과 적정 예산이 배정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 방문일정 후 바로 정부세종청사를 찾아가 기획재정부 김범석 정책조정국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새만금 산단으로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산업부 매칭펀드, 기업지원을 위한 도비 지원, 새만금청과의 협력 등 전북만의 차별화된 방안을 마련해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또한, 산업부 공모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북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에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며, 향후 전북이 이차전지 산업의 소재 공급 거점으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전달했다.

기획재정부 면담에 이어, 김 지사는 국토교통부 김복환 혁신도시추진단 부단장을 면담했다.

여기에서 김 지사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전북지역 배려를 요청했으며, 지역 특성과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금융·자산운용, 농생명·식품 분야 공공기관인 한국투자공사, 7대 공제회,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를 전북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앞으로도 김 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는 수시로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해, '24년 국가예산 확보 활동과 함께 현안 법안, 공모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남출/기자

영광군, 제52회 전국 종별 펜싱 선수권대회 개최

영광군에서 전국 최고의 검객들, 자웅을 겨루다.

전남 영광군은 오는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와 실내보조체육관에서 전국 종별 펜싱 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전국 240개 팀 1,800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펜싱 단일 종목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경기종목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및 일반부로 나뉘어 남·녀 플러레, 에뻬, 사브르 개인전 및 단체전으로 진행된다. 또한 경기방식은 조별리그와 토너먼트 대진을 벌여 최종 승자를 결정한다.

찰나의 공격과 방어로 승부가 결정되어 그 짜릿함이 매력인 펜싱은 전통적으로 서유럽에서 사랑받아온 스포츠로, 동양권 문화에서는 다소 생소한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리우와 도쿄 올림픽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올림픽 효자 종목으로서 자리매김하여 현재는 국민적 스포츠로 급부상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도쿄올림픽의 남자 사브르 단체 금메달리스트인 구본길·김준호·오상욱·김정환 선수와 2022 카이로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에페 2관왕 송세라 선수의 참가가 확정돼 전국 펜싱 팬의 이목이 영광군에 집중되고 있다.

영광군은"펜싱 종목 대회가 군에서 처음 열리는 만큼, 군에 방문한 선수와 관계자의 편의를 위해 체육시설 정비를 철저히 하고 관내 숙박업소에 바가지요금 근절 협조 요청을 하는 등 군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순/기자

완도군,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정원 페스티벌 열린다!

제3회 전남 정원 페스티벌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5월의 봄 바다에서 펼쳐지는 빅(big) 가든 페스티벌, 완도 카니발!'이라는 주제로 완도 해변공원에서 열린다.

정원 페스티벌 개막식은 5월 4일 예정돼 있으며, 작품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전시된다.

군은 지난 10일 정원 페스티벌에 전시될 참가 작품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참가 작품은 공모를 통해 접수했으며, 심사위원회에서는 국내 최초로 해변 일원에서 펼쳐지는 콘셉트에 맞게 '바다와 난대 숲'을 주제로 한 특색 있는 '작가 정원' 4개소, '참여 정원' 30개소를 선정했다.

군에서는 '대표 정원' 1개소, 완도군 '12개 읍면이 꾸미는 섬 자리 정원' 12개소 등 완도만의 정서를 담은 정원을 꾸밀 계획이다.

특히 '대표 정원'은 꽃과 나무에 둘러싸인 피크닉 가든을 모티브로 한 가든 레스토랑이 조성되어 축제 기간 중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을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유명 셰프의 쿠킹 쇼도 열릴 예정이다.

페스티벌이 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 개최되는 만큼 어린이를 체험 프로그램과 캐릭터 포토존 등도 별도 공간에 조성하여 온 가족이 만족할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등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버블쇼와 함께 미니 토피어리 만들기, 모스 정원 만들기, 공연 등 다양한 체험은 장보고 수산물 축제(5월 4일~7일), 전라남도 도민체전(5월 12일~15일) 등과 연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운영한다.

신우철 군수는 "전남 정원 페스티벌은 우리 군에서 처음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기존 정원 페스티벌보다 정원의 개소 수를 대폭 늘렸다"면서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힐링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양영율/기자

광주 • 전남, 차세대반도체 원천기술개발 국가공모 선정 쾌거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신청에 청신호…광주·전남 공동 프로젝트 진행

광주광역시·전라남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지역혁신 메가 프로젝트'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과학기술 자원의 지역별 편중과 격차를 해소하고, 장기적 관점의 원천기술 개발 등 지역의 자생적인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총 5개 과제가 선정됐으며, 차세대반도체로는 광주·전남 초광역 협력과제인 '초시각(슈퍼비전) 인공지능(AI)을 위한 겹눈 모방 신경모사(뉴로모픽) 반도체'가 유일하다.

이번 공모에 상생1호 사업으로 '반도체특화단지 유치'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 사업은 1단계로 올해부터 3년간 68억원을 들여 겹눈 모방 단위 소자 개발 및 다층 신경모사(뉴로모픽) 연산망을 구현한다.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평가 결과에 따라 오는 2032년까지 최대 10년간 국비 200억원이 투입되는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 개발된 차세대반도체 기술을 빠른 정보 처리, 저전력화 필요 제품에 접목하는 실증과정을 거쳐 인공지능형 무인이동체 적용 반도체 제품을 지역 기업과 협업을 통해 상용화할 계획이다.

차세대반도체 핵심기술인 이종접합 원천기술 개발을 활용한 제품 상용화는 지역내 반도체기업뿐만 아니라 광산업기업들에게도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에는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광기술원, 전자분야 핵심부품 생산기업인 한국알프스㈜, 최첨단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네패스, 인공지능 반도체 팹리스(설계) 기업인 ㈜사피온코리아, (재)광주과학기술진흥원, (재)전남테크노파크 등 지역대학·기업·기관 10곳이 함께 참여한다.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인공지능반도체 기술은 미래산업의 핵심 기술이다"며 "차세대반도체 기술 개발을 통해 정보처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각 기술 발전의 핵심요소인 속도와 전력 최적화를 실현해 미래 첨단 분야 먹거리인 무인이동체 분야를 광주시가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광주·전남 상생 1호 사업인 반도체특화단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광주시와 원팀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충실하게 수행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이끌 반도체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진도 신비의 바닷길 체험하듯…미디어아트로 만난다

200여m 해안 도로에서 뽕할머니 전설, 소망·사랑 주제로 저녁 7시 시작

국가지정 명승 제9호인 진도 신비의 바닷길이 첨단기술과 만나 신기술 융합 콘텐츠로 다시 태어난다.

진도군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제43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기간 동안 최신 미디어 아트 기술로 빛과 영상을 활용한 신비의 바닷길 미디어아트를 운영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신비의 바닷길 미디어아트는 뽕할머니의 전설, 소망과 사랑 등의 주제로 축제 기간 동안 매일 저녁 7시에 뽕할머니 동상에서 200여m의 해안도로를 따라 펼쳐질 예정이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을 기하학적인 점·곡선·면의 디자인으로 표현하고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물과 빛의 순환을 담은 미디어아트는 실제로 진도 신비의 바닷길이 갈라지는 효과 등을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또 형형색색 다채로운 색감을 통해 신비로운 자연 경관인 진도 신비의 바닷길을 이색적이면서도 친근하게 표현해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최근 관광에 접목된 새로운 문화예술 트렌드인 체험형 미디어아트를 통해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의 의미를 이어가면서 야간 콘텐츠를 강화해 빛과 영상으로 신비의 바닷길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전국에서 손꼽히는 진도 민속·문화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야간 콘텐츠를 강화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 축제 기간 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시각 콘텐츠인 미디어아트를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 도입했다"며 "진도군이 보유하고 있는 천연자원과 민속·문화자원을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로 축제 기간 동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경호/기자

'안보-상생 결실' 나주 금성산 56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연내 상시 개방 목표 … 탐방로 설치, 안전성 확보 등 관·군 협력 강화

전라남도 나주시의 진산(鎭山)인 금성산 정상부가 56년 만에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주시는 11일 시청사 이화실에서 공군제1미사일방어여단과 '금성산 정상부 상시 개방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성산 정상부는 지난 1966년 공군부대 주둔 이후 매년 1월 1일 새해 해맞이 행사 날을 제외하고 일반인에게 개방이 제한돼왔다.

도심과 지척에 있는 진산이지만 시민과 등산객들에게 산 정상은 그저 아름다운 경관을 보는 것에 만족해야 했고 정상부 개방은 시민의 오랜 염원으로 지속돼왔다.

나주시는 시민의 오랜 염원을 풀고자 산 정상부 개방을 위한 관·군 간 논의·협력을 지속해왔다.

특히 지난해 연말 윤병태 시장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군 관계자들과 만나 공군 방공포대 이전에 따른 산 정상부 상시 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윤 시장은 "나주시민들에게 금성산은 단순 산이 아닌 정신적인 고향이자 수호신, 어머니의 품 같은 존재"라며 "과거 안보 논리에 국한되기보다는 이제는 시민들과의 상생을 가치로 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라고 산 정상 개방을 요청했다.

그리고 이날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상생을 가치로 관·군의 협약이 마침내 이뤄지면서 56년 만에 산 정상부 개방이라는 뜻깊은 결실을 맺게 됐다.

협약식에는 윤병태 시장, 이종서 여단장, 이상만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관·군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나주시와 공군제1미사일방어여단은 연내 산 정상부 상시 개방을 목표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협약서에는 상시 개방을 위한 노적봉 탐방(등산)로·쉼터 등 개설, 공사구간 사전 지뢰 확인·제거, 안전 인력 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의 진산인 금성산 정상부를 56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는 역사적인 협약을 체결해 뜻깊고 기쁘다"며 "공군과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을 통해 올해 산 정상부 상시 개방을 위한 협약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종서 여단장은 "금성산 산정상부 상시 개방을 위한 관·군의 협력이 결실을 맺게돼 기쁘다"며 "탐방로 개설 등 국가안보와 더불어 시민 권익을 위해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가겠다"고 화답했다.

김영안/기자

김제시, 농공·산업단지 대상 고향사랑기부제 길거리 홍보 나서

김제시는 지난 3월까지 19개 읍면동 순회 고향사랑기부제 길거리 홍보를 마무리하고, 지난 11일 지평선 산업단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길거리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는 남은 4월동안 관내 10개 농공산업단지 인근에서 현수막, 피켓 등을 활용한 홍보 캠페인을 펼쳐 산업단지 내 관외 지역민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며 김제에 기부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김제시는 읍면동 및 관공서 인근에서 길거리 홍보를 펼쳐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안내와 김제의 우수한 답례품을 소개하는 등 활발한 캠페인을 실시하여 왔으며, 특히 이번 홍보는 김제시 농공·산업단지에 등록한 320개 업체의 관외 거주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길거리 홍보를 통해 우리 시에서 직장을 다니는 관외 지역민들이 김제를 더욱 응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며, '고향사랑e음'사이트나 전국 농협 방문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기부가 가능한 제도이다.

김현태/기자

군위군, 동산계곡 합동단속 T/F팀 현장 실태조사 실시

군위군은 지난 10일 팔공산 동산계곡 내 지속적인 불법사항 근절을 위한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동산계곡 합동단속 T/F의 단장인 부군수를 비롯하여 8개 반, 20여명의 팀원들이 현장조사에 나섰다.

팀은 동산계곡 일대를 함께 돌아보며 각 반별로 하천부지 무단점용 여부, 산지전용 위반 여부, 사방시설 불법 변경행위,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캠핑장 운영, 불법 옥외광고물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하고 현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인근 상인들을 만나 위법사항 확인 및 자진철거를 명령했으며 미이행시 관련법에 따른 행정조치 계획을 안내했다.

군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사항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반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치할 방침이다.

이상현 부군수는 "오랫동안 지속된 불법행위와 방치된 자연훼손 등을 이번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철저히 정비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위해 상인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송광삼/기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기여

천안시, 446대 체납차량 적발…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천안시는 지난 11일 새벽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적발된 체납 차량은 446대로, 체납액은 1억1500만 원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었으며,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한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시는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오병창 천안시 세정과장은 "차량 관련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연중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성실 납세자와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시흥시,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방문 점검 철저

시흥시는 백신 오접종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고 정확한 예방접종을 위해 4월부터 5월 말까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131개소 및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204개소를 방문해 점검 활동을 전개한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보건소는 연 1회 이상 위탁의료기관 현장 방문점검을 실시하고, 위탁의료기관은 연간 2회 자체 점검을 통해 자율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번 방문 점검으로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실시 기준 준수 여부 △백신별 보관 장소 구분 및 백신 냉장고 온도 유지 상태 등 백신 관리 △오접종 방지를 위한 대상자 확인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와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방효설 시흥시 보건소장은 "오접종 없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예방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점검 관리를 철저히 해 시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울진군, 2023년 상반기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울진군은 4월 10일부터 3주간 관내 유료직업소개소 등을 대상으로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을 장려하기 위하여 2023년 상반기 직업소개소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여부와 더불어 특히 직업소개소 종사자에 대한 4대보험 취득여부, 건설관련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개요금에 대한 집중점검에 들어간다.

최근 건설직종을 소개하는 직업소개소에서 소개요금을 추가적으로 공제하여 임금을 대불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고용노동부로 제기되고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직업안정법 제19조 3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건설직종 : 구직자 1%, 구인자 10%)외의 요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50조 1항 제1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신한울 원전건설과 관련되어 건설직종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신규 직업소개소 등록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지도점검과 안내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장대근 일자리경제과장은"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인력시장의 고용질서를 확립하고 그 토대 위에서 울진군의 건설경기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감독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사천해경, "대한민국 안전대전환"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 실시

재난적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기름 저장시설 유관기관 합동 점검

사천해양경찰서는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사천 관내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위험이높은 300㎘ 이상 기름저장시설 3개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체계 ▲방제 교육 및 훈련 이행실태 ▲시설 및 안전설비 점검 등 사업장 내 안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진단·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 관리주체가 스스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해양시설 집중 안전점검으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해양환경 피해로부터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며"사업장에서도 자율적 안전 문화가 성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이용준/기자

안성시 전역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 집중단속 실시

안성시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는 종량제 봉투를 미사용하여 일반 봉투 등에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가구 등 대형폐기물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미부착하여 배출하는 행위, 배달음식을 분리 배출하지 않고 투기하는 행위 등으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및 기동처리반을 이용하여 시내 곳곳의 불법 투기된 쓰레기에 대해 검사하여 인적사항 등을 적발할 예정이다.

2022년에는 불법 폐기물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을 총 298건에 대해 179,108천원을 부과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및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 분리배출 생활화 교육 및 홍보물 제작·배포 등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지역 관리와 무단투기 감시를 위한 CCTV 설치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송석근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주민홍보를 통하여 아름다운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시민들에 대하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과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혜영/기자

충남도, "유관순 열사 정신…오늘의 삶에 구현해야"

제22회 유관순상 시상식 개최…최정숙을 기리는 모임 등 수상

유관순상위원회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맞아 천안 독립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제22회 유관순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유관순상 시상식은 유관순상위원회가 주관하고, 도와 이화여고,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했다.

유관순상은 조국 독립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시대에 맞게 구현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여성(단체)을 선발해 시상하는 포상제도다.

김태흠 지사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윤종진 국가보훈처 차장,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김혜정 이화여고 교장, 류정우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장, 수상자와 가족, 관련 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영상 상영, 수상자 공적 소개, 시상, 축하공연, 유관순 열사 어록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난달 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한 각 부문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금, 꽃다발을 전달했다.

유관순상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인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이, 유관순횃불상에는 문세랑 서울국제고 학생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유관순상 수상단체인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은 유관순 열사와 동시대에 3.1만세운동을 한 의료인이자 제주도의 초대 교육감으로 평생 여성교육운동에 헌신한 고(故) 최정숙 선생의 유업을 기리고 계승하는 단체다.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은 아프리카 부룬디공화국에 '최정숙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해 여성 인재를 육성하고 초등·중학교 통합 과정의 '최정숙 초등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팜유공장·비누공장 등을 운영해 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 서울 중림동 쪽방촌 후원, 제주도 내 학교와 연계한 연변조선족 청소년들에게 책 보내기 운동 등을 추진, 국내외로 모범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황옥선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 회장은 "최정숙 선생님은 교육이야말로 민족 독립의 길이자 애국의 길,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며 제주 여성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면서 "민족·나라·이웃 사랑으로 유관순 열사와 최정숙 선생님의 삶을 이어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유관순횃불상은 전국 고교 1학년 여학생 및 16세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학교와 사회에서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실천하는 청소년에게 수여한다.

올해 유관순횃불상을 수상한 15명은 앞으로 유관순횃불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횃불모임을 통해 유관순 열사를 알리기 위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아우내장터와 서대문 감옥에서 보여주신 열사의 정신을 역사책과 박물관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구현해가는 것이 후손인 우리의 책무"라면서 이를 실천하고 있는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했다.

최정근/기자

공예로 봄을 느껴봄! 청주시한국공예관 '공예의 계절-봄'개막

4층 윈도우갤러리서 공예의 사계(四季)를 테마로 연중 기획 전시

만발했던 벚꽃은 졌지만 공예의 봄은 이제 시작이다.

청주시한국공예관이 11일, '공예의 계절(the Seasons of Craft) - 봄' 전시의 막을 올렸다.

문화제조창 본관 4층 윈도우갤러리를 활용한 '공예의 계절(the Seasons of Craft'은 사계(四季)를 테마로 공예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하는 연중 기획 전시로, 오는 5월 28일까지 선보이는 '봄'전시에는 공예스튜디오 2023 입주작가 6인이 참여한다.

도자와 금속 분야 아티스트인 김예지, 노정숙, 박송희, 임인영, 전은미, 정철호작가가 총 35점의 작품을 통해 '봄'을 이야기하는 이번 전시는 특히 새로이 입주한 공예스튜디오 젊은 작가군의 작품을 한눈에 조망하며 그들의 싱그러운 역량과 가능성을 점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예관 관계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만큼이나 다양한 색과 매력을 가진 공예를 만끽하게 될 연중 기획 전시에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란다"며 초대의 말을 전했다.

'공예의 계절(the Seasons of Craft)'은 올해 12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여름'편은 6월 6일에 이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공예관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고정화/기자

태백시, 폐광지역 생활권 인구감소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식 개최

11일 태백시청 대회의실에서는 폐광지역 4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폐광지역 생활권 인구감소 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개최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폐광지역 4개 시·군은 상생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상호 협력 사업 발굴 등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다양한 공동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유상근/기자

총상금 600만 원 '2023 천안의 봄 사진 공모전' 개최

천안시는 천안의 다양한 매력과 공감이야기를 찾고 고품질 사진을 시정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2023 천안의 봄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2023 천안의 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천안의 주요 명소, 야경 등 풍경 사진이나 천안시민의 삶과 일상을 담은 사진을 오는 5월 31일까지 공모한다.

3장의 사진을 제출해야 1회 응모가 인정되며, 출품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중복수상은 불가하다.

총상금은 600만 원으로, 시는 대상 1명(100만 원), 최우수 3명(50만 원), 우수 5명(30만 원), 장려 10명(20만 원) 등 19명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 활용성, 대중성 등 내부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수상작은 시의 각종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심사 결과는 6월 중 천안시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 통지된다. 신청은 천안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천안시 누리집 또는 공식블로그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작품과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미영 홍보담당관은 "천안시에 관심 있는 많은 분의 참여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천안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봄의 매력이 발굴되고 시정 홍보의 질도 한층 높아지길 희망한다"며, "많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천안시 홍보담당관 미디어홍보팀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정근/기자

원주시, 2023년도 비상경제 예산안 1조 7,580억 원 편성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당초 예산 대비 1,710억 원(10.78%) 증액 편성

원주시는 당초 예산 대비 1,710억 원(10.78%) 증가한 1조 7,58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2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비상경제 시국을 고려하여 "아낄 때는 아끼고 쓸 때는 쓰는"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두었다.

공모사업 및 지방이양사업 선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을 비롯하여 민생경제 회복 및 민선 8기 공약사업과 역점사업의 구체적 실현, 시민 불편 해소 등 시급한 사업에 집중 편성했다.

특히, 급격한 국내 물가상승과 고금리 현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 35억 원, 원주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89억 원 등 35개 사업에 245억 원을 반영했다.

추경 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250억 원, 세외수입 3억 원, 보통교부세 547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86억 원, 국·도비 보조금 144억 원, 순세계잉여금 247억 원, 전년도이월금 284억 원으로 상반기 내 집행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비상경제 시국엔 비상한 시책이 필요하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시책을 발굴하여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도시에 따뜻한 활력을 만들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재정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 아산시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열려

박경귀 아산시장 "장애인 인식개선, 모든 장애인 정책 출발점 돼야"

아산시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11일 아산터미널 웨딩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은 매년 4월 20일로 지정된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아산시지회 주최, 아산시 후원으로 열렸다.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를 슬로건 아래 열린 이날 행사에는 박경귀 아산시장,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장애인, 장애인 가족, 장애인복지유공자, 장애인단체 및 기관(시설)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시각장애인 무지개 동아리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모범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 기여자에 대한 표창 수여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어우러진 행사를 지켜보며. 참석자들은 장애인 인식 개선과 복지 증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건휘 충청남도 지체장애인협회장은 "장애는 삶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을 뿐,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장애로 인한 차이와 불편이 차별이 되지 않는 도시,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살기 좋은 도시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더 많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경귀 시장은 "오늘 표창받으신 분들을 비롯해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주고 계신 많은 분의 노력 덕분에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차별적 시선과 생각을 바로잡고, 장애인 권리 증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모든 장애인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산시 민선 8기는 '무장애 도시'를 선언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향상과 사회적 문턱을 낮추는 일에 집중해 왔다"면서 "아산시가 전국 제일의 무장애 도시로 거듭나려면, 여기 계신 여러분을 비롯해 37만 아산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장애와 관계없이 누구나 행복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아산시 조성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2023년 장애인 생활 안정, 돌봄 등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49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장애인 일자리 참여 등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원 지속 추진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원호/기자

전국조정선수권대회 화천 개최, 수상 종목 스포츠 마케팅 시동

제65회 전국조정선수권대회, 15일부터 3일 동안 개최

'물의 나라'화천군이 수상 종목 스포츠 마케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화천군과 대한조정협회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간 북한강 일대 조정 경기장에서 '화천 산천어와 함께 하는 제65회 전국조정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화천군 체육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겨우내 동계훈련을 마친 전국의 조정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룬다는 점에서 올 시즌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남녀 대학부와 일반부, 남녀 중·고등부 53개팀, 선수단 약 500여명이 참가한다.

전국선수권대회에 앞서 13~17일,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치러질 예정이다.

경기에 앞서 공식 훈련이 12일 시작됨에 따라 참가팀들이 적응훈련을 위해 속속 화천지역 곳곳에 캠프를 차리고 있다.

덕분에 화천읍 일대 상가들도 특수를 누리는 등 대회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탁월하다.

화천군은 대회장 주변 5분 거리에 숙박 및 음식업소들이 위치해 있고, 전지훈련단 전용 웨이트 트레이닝시설, 북한강 산소길과 종합운동장 러닝 코스 등 최적의 훈련조건을 갖추고 있다.

겨울철에는 화천실내체육관 내부에 실내 조정훈련시설까지 완비하고 있어 사시사철 카누와 조정 등 수상종목 선수단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올 하반기에도 카누와 조정 등 스포츠 대회들이 이어질 예정"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최만식/기자

부산시, 부산을 대표하는 스타트업 지원·육성에 나선다!

지역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단계별 성장지원을 위한 전주기적 통합 지원 프로그램 운영

부산광역시가 3개 창업 지원기관(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과 함께 '2023년도 부산대표 창업기업 지원사업' 4개 클럽(브라이트클럽, 밀리언클럽, 플래티넘클럽, 에이스스텔라)의 창업기업을 통합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부산의 창업 지원기관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4개 클럽을 구성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장 단계별로 ▲'브라이트클럽'(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밀리언클럽'(부산경제진흥원), ▲'플래티넘클럽'(부산테크노파크), ▲'에이스스텔라'(부산테크노파크)로 나누어 클럽별 사업화 자금 지원과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브라이트클럽'에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지닌 태동기의 스타트업 20개 사를 선정하여,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의 맞춤형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부산경제진흥원은 '밀리언클럽'에 연 매출 5억 원 이상 스타트업 40개 사를 인증하고 별도 심사를 통해 20개 사를 선정하여, 최대 3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인증 2년 차에는 우수 스타트업 3개 사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의 사업고도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테크노파크는 '플래티넘클럽'에 1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받은 성장기의 스타트업 4개 사를 선발하여,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5억 원 이상의 씨드(SEED) 투자 유치를 받아 사업성을 검증받은 스타트업은 해당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에이스 스텔라'에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부산테크노파크는 3개 사를 선정하여 최대 1억 원 이상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아기유니콘·예비유니콘 단계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4개 클럽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에는 '부산 대표 창업기업' 인증서와 현판이 제공된다. 인증기업은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창업공간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멤버십 프로그램 혜택 외에도 올해에는 각 클럽을 운영 중인 기관별 시설 공간과 창업 프로그램과의 연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 대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오는 4월 24일 18시까지 온라인 창업 통합 플랫폼 '부산창업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클럽 간 중복 지원 불가), 기관별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클럽별 인증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부산 대표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기술 경쟁력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부산 지역의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멘토링,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등 총 696개 창업기업에 대하여 지원해왔다.

손성은 부산시 금융창업정책관은 "부산의 3개 창업지원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반시설(인프라)과 단계별 성장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부산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이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더 나아가 부산 지역 스타트업의 발전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가 전국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종진/기자

경북도, '제20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너지 기업유치 박차

엑스코에서 12일부터 3일간 열려, 300개사 1010개 부스 참가

경북도와 대구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엑스코 등이 주관하는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가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는 국내 최대, 세계 10대 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로 25개국 300개사 1010개 부스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는 태양광 모듈, 인버터, 태양광 구조물, 솔라루프, 에너지저장시스템 등을 전시하고, 생산량 기준 세계 10대 태양전지 및 패널 리딩 기업인 한화큐셀, 통웨이, JA솔라 등 7개사가 참가했다.

이와 함께 생산량 기준 세계 10대 태양광 인버터 기업인 솔라엣지, 화웨이 등 8개사와 국내 리딩기업인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이엔지, 한솔테크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스폰서로 참가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진행되지 않았던 '네트워킹 파티'를 개최해 참가업체 간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며,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한 '그린에너지어워드(Green Energy Award)'도 개최한다.

또 코로나19로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은 국내 기업의 수출 진작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던 수출상담회를 온·오프라인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린에너지엑스포 개최기간 동안 국내 유일의 태양광과 수소 분야 비즈니스 컨퍼런스인 국제미래에너지컨퍼런스(PVMI·H2MI)가 동시 개최된다.

12~13일 양일간 열릴 태양광마켓인사이트(PVMI)에서는 'RE100 구현을 위한 태양광 발전의 미래'를 주제로 태양광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13~14일에는 '수소-산업화 엔진의 시동을 걸다'를 주제로 한 수소마켓인사이트(H2MI)이 진행된다.

올해는 12개국에서 60여 명의 연사가 방한해 글로벌 정책과 시장동향을 소개하고 특히, 블룸버그 NEF, 라이스타드 에너지 등 에너지 전문 해외기관 연사가 다수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홍보관 부스를 설치해 △경상북도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1조1702억원) △수소연료전지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1890억원)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1조3643억원) △공공주민수익형 풍력발전단지조성(1조원) △수소도시사업(416억원) △친환경에너지 RE100산단 조성(4조2500억원)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3996억원) △경주SMR국가산업단지(3966억원) 등 경상북도 주요 에너지 정책사업을 홍보한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올해 20주년을 맞은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가 그 동안의 노하우와 역량을 결집해 더 많은 그린에너지 비즈니스 만남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최대 전문전시회로서 신재생에너지 기업 간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에너지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해 탄소중립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근수/기자

경기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기업규제개선 협력 추진

11일 '기업규제개선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기업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이상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11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규제개선 협력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경기도 내 기업 규제발굴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 컨설팅 및 간담회 등 개최 ▲중앙부처, 국회 법령개정 공동 건의 ▲그 외 관련 기업규제 개선 추진사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도는 시·군과 경기 중기청은 지역 상공회의소과 연계해 경기도 내 다양한 기업규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또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도와 경기중기청 공동주최로 31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규제개선 기업간담회를 개최한다. 오는 18일 남부권역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기업간담회를 경기 중기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11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기업규제개선 협력추진 업무협약식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 이상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발굴된 과제를 경기도는 규제개혁신문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옴부즈만을 통해 중앙에 건의하고, 추후 법령개정 사항이 있으면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기존에는 기관별로 규제를 발굴하고 건의했으나,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도와 경기중기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도내 기업규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인천시, 채무조정 컨설팅으로 소상공인·금융취약계층 경제적 재기 돕는다.

인천광역시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2023년도 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파산·회생·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조건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 소득·재산·상환방법·상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등 채무조정비용을 지원해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인천시는 2018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 13,353명에게 채무해결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이 중 2,023명에게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비용을 지원했다.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파산(86%), 개인회생(4%), 워크아웃(3%), 기타(7%) 등으로 개인파산 대상자가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31%), 60대(33%), 60대 이상(13%)로, 50대 이상 연령층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또한 채무발생 원인으로는 소상공인 사업실패(61%)가 가장 많았고, 생활비(17%)·보증(13%)·사기(6%)·기타(3%)순이었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3高(금리·물가·환율)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채무상담과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 및 인천시민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전화상담 후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종남/기자

고양특례시, 벤처기업 30여개사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고양특례시는 지난 4월 11일 고양킨텍스에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고양판 실리콘밸리 구축을 위한 고양경제자유구역 및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사)벤처기업협회의 협력으로 진행됐다. 고양시 중점육성분야인 메디컬·바이오, 미디어·콘텐츠, IT·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 30여개사가 참가했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직접 나서 고양 경제자유구역(지정 후보지) 및 일산테크노밸리를 소개하며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벤처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는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시장은 "벤처기업의 인재 채용, R&D, 시장 진출 등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유수의 글로벌 기업, 대학, 연구소를 유치해 우수한 인재가 확보되고 해외시장으로의 판로가 확장되는 등 기업의 성장 기회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가 2026년 준공되면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IP융복합 클러스터, CJ라이브시티, 방송영상밸리 조성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이뤄 경기북부지역의 신성장 동력 및 자족기능을 담당하는 핵심거점이 될 전망"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재 시는 유망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고양 벤처펀드 1, 2호'를 운영 중에 있다. 3호는 2024년 출자할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벤처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한 기본토대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한영기/기자

대전시·서울시, 지역상생 협력체계 구축한다

도시 디자인, 트램 건설, 마이스 마케팅 등 7개 분야 협력 강화

대전시와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공유하고 함께 발전하는 지역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대전시는 10일 대전시청에서 서울시와 교류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이장우 대전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대전시, 서울시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서 서명, 교환, 상호 간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 등으로 진행됐다.

양 도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 도시 디자인 정책 교류 활성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폐기물, 건물, 신재생에너지 분야 공동협력, 마이스(MICE) 공동마케팅 교류협력, 트램건설 기술교류 활성화, 스포츠 교류 활성화, 대전-서울 품앗이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양 도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축하고, 양 도시가 보유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 우수 도시 디자인정책 관련 현장을 방문 및 도시 디자인 성과를 공유하고, 디자인정책 관련 포럼 등을 개최하여 도시 디자인 정책분야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에서 착공한 트램 위례선에 대한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 기술 교류회 등을 공동 개최하여 트램 관련 기술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이어 양 도시가 주관하는 마이스 행사 개최시 관련 기관이 적극 협력하고, 서울시'PLUS CITIES'브랜드 활용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해 국내.외 마이스 행사 유치에 긴밀하게 협력한다.

생활폐기물 감량·재활용 및 안정적 처리 방안 교류, 중대형 건물에 대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행모델 공유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교류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생활체육대축전 등 상호 기관의 대표적인 대회 개회식 참가, 종목별 교류 추진(연 3~5개 종목 추진) 등을 통해 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 활용한 양 도시의 주요 행사를 홍보하기로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선 8기 시작하면서 도시 디자인, 마이스산업 육성, 트램 조기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도시 서울시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대전 시정에 긍정적 효과 예상된다" 라고 말했다.

또 이 시장은 "올해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수도권에서 생활하는 대전 연고 시민분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양 도시는 주요 협력사업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원호/기자

음성군 차주원 옹, 무한한 고향 사랑… 평생 헌신·기부

장학금 쾌척, 매년 백미 기탁 등 지역사회에 온정 펼쳐

충청북도 의회 제4대 의원, 제5대 의장(1995년 7월)과 대한적십자 충북지사 회장(2000년 4월)을 역임한 차주원(95세) 전 회장의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이 음성군민에게 큰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차주원 전 회장의 지역 공동체에 대한 헌신은 회사 '평곡석재' 설립(1979년) 전후인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75년경 농촌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비를 털어 암송아지 55두를 군에 기탁 했다고 한다. 어려운 농가에 1두씩 무료 분양하고 성축이 돼 송아지를 낳으면 성축은 사육 농가가 갖고 송아지는 다시 무료 분양하는 식으로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한 것이었다.

1980년대 초 평곡석재에서 정구 실업팀을 창단해 충청북도 체육발전에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화 초기 일할 곳이 마땅치 않던 시대에 어려운 이웃의 자녀에게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조성에 힘써 왔다.

당시 평곡석재에 필요한 인원은 200명 정도였으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시대에 함께 나누며 살자는 뜻에서 300명 정도를 채용했다고 한다.

특히 매년 300여명의 중·고·대학생에게 2억5000만원에 달하는 장학금이 지급될 정도로 규모가 커진 '음성군장학회'의 시작은 지역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1991년 차주원(초대 이사장) 전 회장과 출향 인사들이 의기투합해 설립한 (재)음성장학회에서 비롯됐다.

당시 차주원 전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사비로 만든 기금 3억4900만원이 종잣돈이 돼 2022년 말 장학기금 적립액이 212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군 단위에서 그 예가 보기 드문 액수이고 지역 동량 육성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재)음성장학회를 설립하기 전에도 이미 나라가 잘되려면 인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1980년대 초부터 차주원 전 회장은 '평곡장학회'라는 명의로 음성·증평·괴산에 있는 학교들을 직접 찾아가 장학금을 쾌척해 왔다.

어려운 이웃을 위하는 마음도 남다르다. 2004년도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좀 더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1개당 1만원 상당의 가격에 판매되는 사랑의 지팡이 7천여 개를 쾌척했으며,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위해 20년 넘게 매년 150포 가량의 백미를 기탁해 왔다.

이 밖에도 마을회관과 경로당 부지 기부, 경로당 연탄 지원, 어린이 놀이터 마련, 도로포장 등 수많은 공로로 음성읍 평곡리와 소이면 충도리에 송덕비가 세워져 있다.

송덕비에는 '도로포장, 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립과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 등을 마련하는 등 동리(마을)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한 것을 기리기 위해 주민들이 공덕비를 세웁니다'라고 새겨져 있다.

지난 3월에는 방문객 누구나 빼어난 수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시가 3천만원 상당의 소나무 두 그루를 음성읍 행정복지센터에 기증하기도 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차주원 전 회장님의 멸사봉공 정신과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군민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며 존경과 감사함을 전했다.

고정화/기자

한국노총 완주지역지부, 완주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한국노총 완주지역지부가 완주 고향사랑부제 응원에 동참했다.

11일 한국노총 완주지역지부는 완주군을 찾아 완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제도 활성화를 기원했다.

최한식 의장을 비롯해 완주지역의 한국노총 노조위원장 10여명은 '농업과 환경을 살리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완주군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와 완주 고향사랑기부제에 힘을 보탰다.

한국노총 완주지역지부는 완주지역의 기관, 완주산업단지 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에도 노력하고 있다.

최한식 의장은 "우리 조합원들은 완주군의 지역경제를 이끄는 최일선의 경제현장에서 근무해오며 완주를 제 2의 고향으로 사랑하고 있다"며 "지역의 일원으로 응원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완주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을 살리고 근로자에게도 혜택이 되는 제도인 만큼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 고향사랑기부제 응원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기부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완주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김광수/기자

"예천군 응원해요!" 재경유천면민회,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전달

출향인들 십시일반 정성 모아… 예천군, 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 이어져

예천군은 재경유천면민회 500만 원을 비롯해 윤위규 전 회장으로부터 200만 원 등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을 전달받았다.

특히, 윤위규 전 회장은 평소에도 고향인 예천군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고향 발전을 위해 통 큰 기부를 했으며 회원들도 십시일반 정성을 모았다.

윤춘근 회장은 "몸은 비록 멀리 있지만 고향인 예천군을 위해 군정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기부금이 소중히 쓰이기를 바라고 다른 출향인들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동 군수는 "고향을 잊지 않고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재경유천면민회 윤춘근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탁해주신 기부금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남씨대종회 남중경 부회장, 영양군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남씨대종회 남중경 부회장이 4월 11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남중경 부회장은"남씨 가문의 뿌리인 영양의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며"영양군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고향을 잊지 않고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 주어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기부금은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봄맞이 감악산 • 마장호수 재능기부 버스킹

"관광지 활성화 및 고객친화 관광지 조성"을 위한 거리공연 추진

파주도시관광공사는 벚꽃이 만개하는 따뜻한 봄을 시민들과 함께하고자 감악산과 마장호수에서 봄맞이 재능기부 버스킹(거리공연)을 실시했다.

'재능기부 버스킹'은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주말마다 시민들이 참여하여 통기타, 색소폰, 트로트 등 여러 분야의 공연을 통해 관광객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힐링 공간을 조성했다.

공연을 관람한 관광객들은 "봄철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버스킹 공연을 즐길 수 있어 기쁘고 지쳐있던 마음을 음악을 통해 위로 받았다"고 전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최승원 사장은 '재능기부 버스킹'에 참여해주신 시민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관광객들이 봄맞이 버스킹을 통해 음악과 함께하며 봄의 정취를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지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여 관광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인천 중구, 사회적경제·골목상권 함께한 '차이나는 골목축제' 성황리 마쳐

인천 중구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지난 8일 골목상권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사회적경제와 골목상권이 함께하는 '차이나는 골목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센터와 차이나타운상점 상인회가 협업해 진행한 행사로, 사회적경제에 관한 관심·이해를 높이고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사회적경제 기업과 차이나타운·동화마을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열렸다.

특히 중국문화체험과 중국어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기업과 연계, 차이나타운 특색에 맞는 중국전통문화 체험, 변검마술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보여 많은 관광객에게 인천 중구만의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또한 중구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SE(Social Economy : 사회적경제)력 확장' 부스도 운영하며 우수 제품을 홍보하기도 했다.

동시에 아이쿱협동조합의 '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NO 플라스틱 약속 캠페인)'에도 동참, 참여자들에게 종이팩 생수를 제공해 환경· 경제를 모두 살리는 상생 가치 실천의 사회적경제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연대, 상생, 협력의 가치를 구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사회적경제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차이나는 골목축제'는 오는 5월 중순 다시 찾아올 예정이다.

김종남/기자

"완주의 봄 맛을 느껴보세요" 봄푸드 페스타

21일부터 22일까지 W푸드테라피센터 일원서

완주군이 따뜻한 봄날, 맛있는 축제를 선보인다.

11일 완주군은 봄철 먹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2023완주, 봄푸드 페스타(festa)'를 전북 혁신도시 W푸드테라피센터 일원에서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완주군 농촌신활력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축제는 로컬푸드를 활용한 식품업체의 밀키트 요리와 농부셰프들의 달콤 쌉싸름한 디저트 등 완주의 먹거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봄철 싱그러움을 담은 대표 농산물인 딸기와 쑥, 냉이와 두릅을 활용한 디저트와 전통주 안주요리, 브런치 메뉴를 정원에서 즐길 수 있는 피크닉 세트로 선보인다.

이외에도 완주군이 상표 출원한 완주바로밀 밀키트 상품으로 한우큐브스테이크, 떡갈비, 퓨전피자와 우리쌀 떡볶이 등을 밀키트관에서 할인행사로 만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완주생강을 활용한 가공상품 33선과 완주의 전통주 5선(△송화백일주 △해야 꾸지뽕와인/찹쌀로만 △오연가 약주와 증류주 △고천양조장 오디여라25/오디여라38 △고택주조 찹쌀생주) 등 물 좋은 완주의 막걸리가 총출동해 전시와 판매 행사에 참여한다.

액션그룹 체험존에서는 아이들이 즐길수 있는 페이스페인팅, 연인을 위한 타투 체험과 타로체험이 운영되며 액션그룹 상품인 메리골드비누, 토끼도기에 반려식물 심기, 허브음료 만들기 등 다채로운 치유농장 체험도 준비돼 있다.

이외에도 W푸드테라피센터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서는 태그&스토리 이벤트가 진행되며 12일 사전행사 준비영상과 함께 22일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소통하는 생생한 현장이야기를 생중계 라이브방송으로 전송할 예정이다.

김광수/기자

화성시문화재단, 제14회 화성시 가족사랑축제 개최

"너는 나의 봄이야!"

(재)화성시문화재단은 시민화합형 축제인 '제14회 화성시 가족사랑축제'를 5월 13일 11시부터 21시까지 동탄호수공원에서 개최한다.

수변공원 운답원에서는 ESG경영 실천을 위한 친환경체험과 시민참여, 공개방송 등이 진행돼 보고, 듣고, 맛보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 무대는 관내 학생댄스동아리, 어린이합창단, 시민참여 풍물놀이와 화성시 마스코트 코리요 이벤트와 화성시청년예술단 및 전문예술인 등의 다채로운 공연도 진행된다.

체험부스는 관내 유관기관 등이 함께하는 꿈마차 플리마켓, 어린이 재난예방 프로그램, 건강관리체험 등의 체험 프로그램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푸드트럭도 운영된다.

이 밖에도 친환경 업사이클링, 플라스틱의 사용 없이 골판지 종이를 활용한 계묘년 가족토끼 그리기, 전통한지와 보릿대 체험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내 학생 DIY 동아리, 캐리커처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축제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공개방송에는 가창력이 매우 뛰어난 R&B 발라드가수 거미와 화성시 매향리가 고향인 가수 안치환, 경서예지, 김동형, 꽃보다 남자(팝페라 가수)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 공연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21시부터는 봄밤을 수놓을 '루나 분수쇼'가 펼쳐지며 환상적인 빛의 세계로 초대한다.

김신아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가족사랑축제를 통해 가족 간 소중함을 느끼고, 이웃 간 화합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시현/기자

한국도자재단, '프랑스 파리 메종&오브제' 전시 참여 작가 모집

재단, 4월 19일까지 '프랑스 파리 메종&오브제' 전시 참여 작가 공개 모집

한국도자재단이 오는 9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23 메종&오브제(Maison&Objet 2023)'에 참가하기로 하고 19일까지 전시에 참여할 작가를 공개 모집한다.

'메종 앤 오브제'는 세계 3대 인테리어 디자인 박람회 중 하나로 1980년 처음 시작돼 매년 봄(1월)과 가을(9월) 두 차례에 걸쳐 프랑스 파리 노르빌뺑드 전시관(Paris Nord Villepinte)에서 개최된다. 지난 1월 행사에는 전 세계 50여 개국 2,300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약 6만 7천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재단은 이번 행사에 여주시와 공동으로 참가해 72㎡(12x6m, 약 22평) 규모의 '경기도자관(Gyeonggi Ceramic Pavilion)'을 구성하고 우수 작품을 발굴·전시해 국내 도예인에 해외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 자격은 재단 '도예가 등록제' 등록 도예인 중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도자공예 작가 또는 디자인 작가다. 모집 분야는 ▲테이블웨어(tableware) 등 생활자기 분야 ▲생활용품, 수공예품, 액세서리 등 인테리어 소품 분야 등 2개 분야로 총 12명의 작가, 48여 점 내외의 작품을 모집한다.

심사는 재단 내외부 전문가의 서류심사로 진행되며 ▲상품성 ▲유통 적합성 ▲현지 행사 직접 방문 의사 등을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해외 왕복 작품 운송료 면제 ▲운송, 전시 기간을 포함한 작품 보험 무료 가입 ▲작품 전시 연출 지원 ▲홍보 및 운영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참여 작가 중 심사 결과에 따라 경기지역(여주시 제외) 상위 5명, 여주지역 상위 5명을 선정해 프랑스 현지 행사에 직접 방문할 기회를 제공하고 최대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참가비 약 40%를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참가 신청서, 포트폴리오(portfolio), 출품작 목록 등을 작성해 사업자등록증, 도예가등록증과 함께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 또는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도자산업팀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한국도자재단 ,호주 주시드니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 '2022 한국생활도자특별전' 모습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해외 유명 페어 참가 확대를 통해 K-컬처의 중심에 있는 우리나라 우수 도자공예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 도예인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성장 동력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3 메종&오브제(Maison&Objet 2023)' 가을 행사는 오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프랑스 파리 명소 200여 곳에서 열리는 국제 디자인 축제 '파리 디자인 위크(Paris Design Week)'와 동시 개최될 예정이다.

조혜영/기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우호교류도시 프랑스 낭트시 순천 방문

정원박람회장 둘러보며 연이은 찬사(쎄보!) 이어져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순천시와 우호 교류 도시인 프랑스 낭트시 부시장(피에르 엠마뉴엘 마레)을 비롯한 행정단 4명이 순천시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시와 우호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둘러보며 성공 개최를 응원했다.

11일 마레 부시장 일행은 정원박람회장을 둘러보며 "정원박람회가 개최된 유럽의 어느 도시보다 더 창조적이다"라며 "개발과 보전이라는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에코벨트는 순천만의 습지를 복원하고 항구적으로 보전하면서 세계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도전의 아젠다가 되어 탄소제로 등 새로운 미래도시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고 찬사를 보냈다.

특히 "회색도시를 연상케하는 아스팔트 도로를 친환경적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준 그린아일랜드와 홍수예방을 위한 재해시설인 저류지가 잔디광장으로 변모한 오천그린광장은 사색, 커뮤니티, 문화가 있는 독특한 도시 공간으로 도심을 연결하는 최고의 걸작이다"고 전했다.

또한 10일에는 2009년도에 국제우호 교류사업으로 추진한 프랑스 전통 유물인 '빨래배'와 '장미원'등이 조성되어 있는 낭트정원을 방문하여, "낭트정원이 순천의 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되어 교류되고 있어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낭트정원은 순천시의 동천과 순천만의 유연한 S자형 곡선, 낭트시를 흐르는 루와르강과 에르드강이 굽이굽이 흐르는 형상을 정원의 중심에 배치했으며, 낭트시에서 직접 제작하여 설치한 빨래배가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해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낭트에서는 한국문화예술을 알리는 '제10회 한국의 봄'축제가 오는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4주간 성대하게 열린다.

올해 10회째를 맞은 축제는 한국의 봄 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KF),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등이 후원한다.

본 행사에는 순천시와 낭트시의 시장 초상화 카툰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며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읽는 전래동화 콘서트, 소규모의 사랑방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도 진행된다.

한편, 프랑스 7대 도시 낭트에서 2013년 시작한 한국의 봄 축제는 수도 파리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한국문화 축제다. 매년 수천 명의 시민이 행사에 참여하여 한국문화를 즐기는 프랑스의 서부지역의 주요 페스티벌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낭트시의 방문은 2018년 4월 이래 5년 만으로 양 도시의 정원문화에 대한 경험을 공유함과 더불어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위해 청소년 교류와 문화교류를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김병수/기자

천안문화재단, 2023 문화매개자 '문화특강'교육생 모집

천안문화재단은 창의적인 지역 문화 인재 발굴과 시민 주체적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3년 문화매개자 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상반기에는 다양한 문화의 이해와 입문을 위한 '문화특강'과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문화매개 활동가를 육성하는 '집중과정'이 추진된다.

상반기 문화특강은 오는 5월 11일 첫 번째 강의를 시작으로 31일까지 공간·축제·예술기획, 인문·문화이슈, 영화, 음악·대중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관련 전문가 특강으로 진행된다.

모집대상은 문화의 이해와 문화 매개 활동에 관심 있는 천안시민 누구나 가능한 열린 강의로, 참가 신청은 선착순이며 재단 누리집의 온라인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천안문화재단 담당자는 "시민주체적 지역 문화를 만들기 위한 기본 교양 강의를 통해 천안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생활문화팀으로 하면 된다.

최정근/기자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스탬프 랠리 이벤트 개최

진도아리랑, 진도북놀이 체험 완주자에게 '여가 진도여 1' 책자 제공

진도군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와 연계해 '진도 문화유산 6종 스탬프랠리' 이벤트를 개최한다.

스탬프랠리는 진도 문화유산인 진도아리랑, 진도씻김굿, 진도북놀이, 진도소포걸군농악, 진도엿타령, 진도서화 등을 체험하고 6종의 스탬프를 획득하는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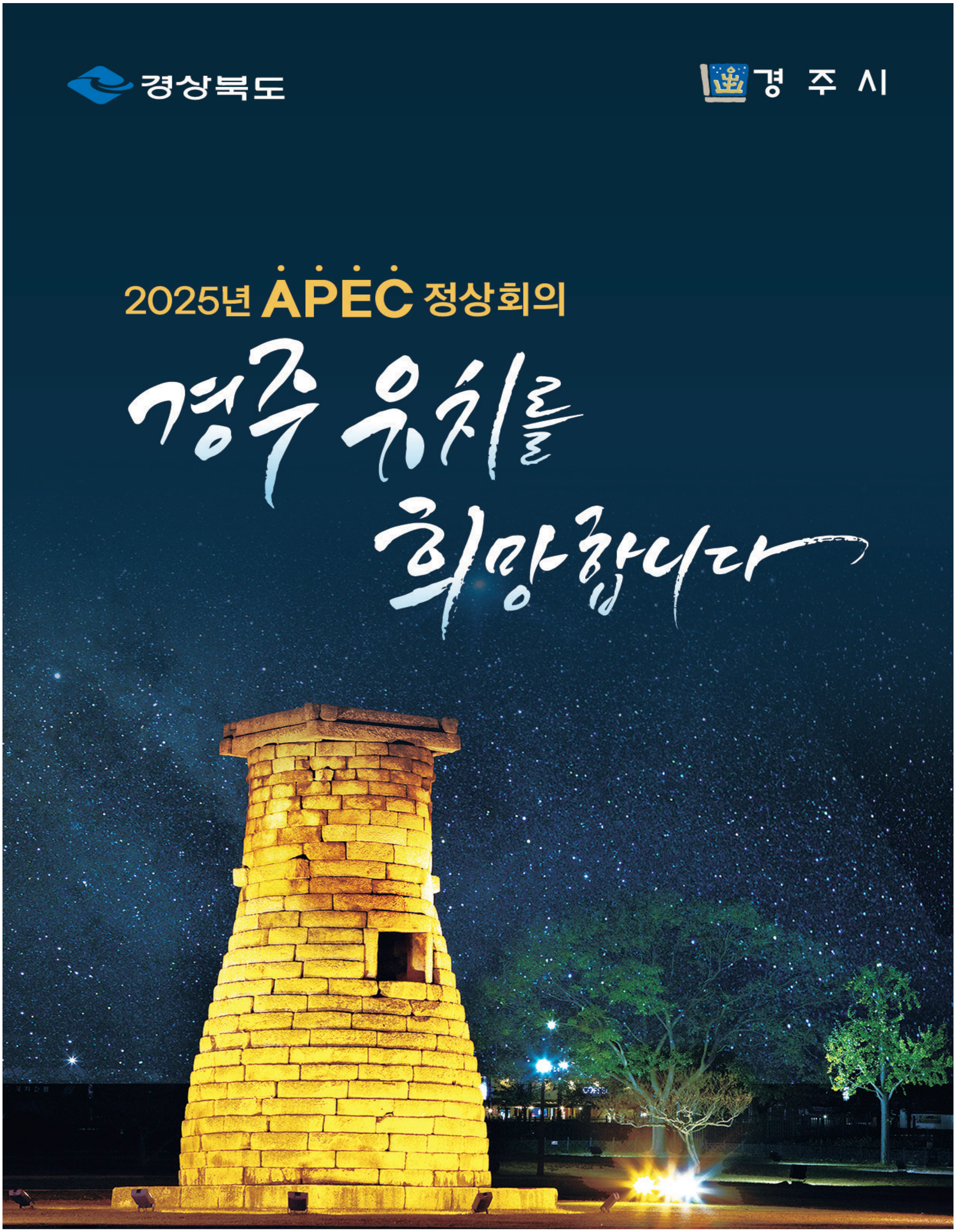
무료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스탬프 미션 장소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현장으로 완주자에게 '여가 진도여 1' 책자를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여가 진도여 1' 책자는 진도군이 축제 성공 개최를 위해 제1회 진도 바닷길 소망 포토에세이 전국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 58편을 출판한 책이다.

군은 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민속문화예술특구인 보배섬 진도군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찬란한 무형문화유산을 즐기면서 특별한 선물도 제공할 예정이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올해로 43회째인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계기로 진도 민속·문화의 우수성과 매력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며, 스탬프랠리 참여를 통해 보다 재미있게 축제를 체험했으면 하는 바란다"고 밝혔다.

윤경호/기자


경상북도
경 주 시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희망합니다